

코스피	8864.24	(+137.64)	코스닥	1031.96	(+13.28)
금리 (2년)	3.710	(-0.007)	환율 (달러)	1511.70	(+0.10)



시發 반도체 수출 호조 금리인상 명분 키운다

한은, 물가·금융안정 자극 판단

‘반도체 호황의 역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명분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 둔화 우려를 덜어냈지만, 동시에 기업 이익이 성과급과 배당, 추가, 세수와 재정지출을 거쳐 가계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물가와 금융안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6년도 제 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만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부총재는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표면적으로는 동결이었지만, 의사록의 무게 중심은 이미 ‘인하 가능성’이 아니라 ‘인상 시기’로 옮겨갔다.

기준금리 2.50% ‘표면적 동결’ 무게 중심 ‘인상 시기’로 옮겨가 반도체 이익, 기업에 머물지 않고 소비·주택시장 이동엔 통화 압력 이미 일부 아파트 가격 상승폭 확대

◆ 성장보다 물가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웃돌고, 성장은 중동전쟁 영향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의 정책 질문이 바뀌었다는 의미다. 경기 부진이 깊어질 때는 금리를 낮춰 수요를 떠받치는 논리가 앞선다. 하지만 성장세가 잠재 수준을 웃돌고 물가가 목표를 상회하는 국면에서는 같은 성

장 호조가 오히려 긴축 명분이 된다. 이번 의사록에서 확인된 변화는 바로 이 지점이다.

그동안 금리 인상론의 중심에는 유가와 환율이 있었다. 중동발 고유가와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소비자물가를 끌어 올리는 구조다. 그러나 금통위가 이번에 더 깊게 들여다본 것은 그다음 단계다. 공급 충격이 일회성 비용 상승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호황이 만든 수요 압력과 결합할 경우 물가 흐름이 더 오래, 더 넓게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 수출 호재가 내수 압력으로

반도체 호황은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핵심 동력이다. 의사록에서 관련 부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 방향은 반도체 수출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웃돈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사이클이 상당 기간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됐다.

문제는 반도체 이익이 수출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통위원은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영업이익이 성과급, 추가 상승, 배당, 세수 확대와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로 이전될 수 있다고 봤다. 수출 증가가 기업 실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성장 호재지만, 그 돈이 가계소득과 자산효과를 거쳐 소비와 주택시장으로 이동하면 통화정책 입장에서 수요 압력이 된다.

의사록에는 이 경로가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관련 부서는 반도체 기업과 직주근접한 서울 동남권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가 격차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은 한은이 반도체 호황을 단순한 성장 호재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수출과 투자를 밀어 올리는 동시에 임금, 추가, 배당, 부동산 기대를 통해 국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반도체가 성장률을 높이고 있지만 물가와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다.

금통위는 의사록에서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고, 성장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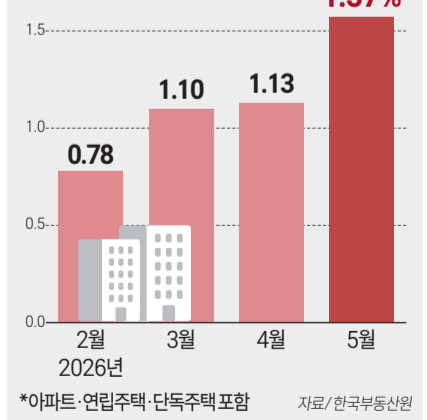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경기도 화성 동탄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단위: %, 전월대비 변동률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자료/한국부동산원

메트로 한줄뉴스



- ▲野, ‘탈모 건보 적용’ 추진에 “2030 겨냥한 매 표성 정책”
- ▲한동훈, 장동혁 거취에 “보수정당 중요 가치 책임지는 모습”

/사진 뉴시스

- ▲국힘, 선관위 공무원 ‘외유성 출장’ 논란에 업무 상 형령 혐의 고발...“관광·휴양 정황”
- ▲21대 대선 투표함서 과거 선거 투표지 발견...결 과연 반영 안 돼

- ▲정점식 “與, 6·3 참정권 훼손 특검법 수용하라...야당 추천 특검으로 해야”
- ▲조국혁신당, ‘투표용지 국조특위’에 정춘생 의원 내정



본지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성료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이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오른쪽에서 일곱번째)와 최상인 동서식품 홍보실장(왼쪽에서 다섯번째)·김동훈 롯데칠성음료 커뮤니케이션부부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

취업자수 감소 전환... 정부 ‘고용대책 골몰’

중동전쟁 영향... 17개월 만에 줄어 정부,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 가동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 패속 집행

국내 고용시장이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17개월 만에 취업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가동하고 업종별·연령별 고용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정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률 역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14만 명 감소)과 수주 부진을 겪는 건설업(4만 3000명 감소), 농림어업(12만 1000명 감소) 등 주요 업종의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 인구·산업구조 변화와 경력직 수시채용 확산에 직면한 청년층의 타격도 컸다. 청년고용률은 46.2%에서 43.8%로 떨어진 반면, 실업률은 6.6%에서 7.2%로 올라 고용 최일선의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청년층 고용 회복을 위해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뉴딜 아카데미를 6월부터 모집해 7월에 개설하고, 체납관리단도 7월(5500명)과 9월(4000명)에 걸쳐 신속하게 채용한다. 이와 함께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 중심으로 확대하고 신규 지원 과제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타격이 큰 제

조·건설·농림어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동향을 밀착 분석해 고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현장 소통을 강화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고용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수립한다.

최근 급속히 진행중인 인공지능전환(AI), 녹색전환(GX)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노동자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직무전환이 필요한 노동자의 전환역량 강화, 이·전직 지원, 고용안정망 및 정책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 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SK하이닉스, 학력제한 전면 철폐... 신입사원 수시채용

공고에 학력 자격 요건 모두 삭제 사실상 전 직군 채용에 일괄 적용

SK하이닉스가 AGI(일반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신입사원 수시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철폐했다. 학력 장벽을 허물고 실제 직무 수행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1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시작한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채용 공고에 명시하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 등 학력 자격 요건을 모두 삭

제했다. 지원자가 보유한 경험과 직무 역량, 기업문화 적합성 등이 부합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된다.

학력 요건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지원이 제한됐던 고졸·전문대졸자도 학력에 따른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학력 요건을 없앴다고 해서 SKCT(종합 역량검사) 등 기존 역량 검증 절차가 별도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채용은 기존 공고에 안내된 전형 그대로 진행된다.

SK하이닉스는 별도 정기 공채 없이 수시 채용으로 인력을 선발하고 있어, 이

번 학력 요건 폐지는 사실상 전 직군 채용에 일괄 적용될 전망이다.

학력 파괴 채용은 최대인 SK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AI 시대 인재상과 맥을 같이한다. 최 회장은 최근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생각 근육’,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적응 근육’, 다양성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협업하는 ‘공감 근육’ 등 ‘3대 근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조현준 효성 회장 “데이터센터 사업, 그룹차원 역량 결집”

조 회장, 'STT Seoul 1' 개관식 참석
서울에서 30MW 규모 IT 용량 제공
“효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것”

“오래전부터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천만 인구가 밀집한 가산에 AI의 심장 역할을 할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해 왔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들어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STT Seoul 1' 개관식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효성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효성중공업과 STT GDC의 합작법인인 효성-STT GDC가 구축한 STT Seoul 1은 30MW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로 효성중공업의 전력 솔루션 역량과 STT GDC의 글로벌 설계·운영 기준이 결합된 시설이다. 클라우드와 AI 수요에 대응하도록 설계됐으며 고밀도 워크로드 처리도 가능하다.

서울 도심 입지도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에너지 규제와 전력 공급망 제약으로 대형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외곽이나 지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열린 효성-STT GDC의 AI 데이터센터 'STT Seoul 1' 개관식에서 조현준 효성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효성

방으로 분산되는 가운데 STT Seoul 1은 서울에서 최대 30MW 규모의 IT 용량을 제공한다.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해 강남·여의도 등 주요 비즈니스 거점과 가까운 데이터 전송 지연을 줄일 수 있다.

보안과 안정성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강화했다. 외부 침입과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보안 기준을 적용해 잠재적 위협과 운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데이터센터 설계·운영 안정성을 평

가하는 글로벌 기관인 업타임 인스티튜트의 Tier III Certification of Design Documents(TCDD) 인증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설비 점검이나 장애 상황에서 서버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했다.

AI 기반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수요 증가로 고성능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 회장은 그룹차원의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 등 전력기기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운영 안정성과 전력 효율성을 높인다. 액화플랜트와 수소중전소 등에서 축적한 건설 역량도 데이터센터 시공과 운영 노하우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효성ITX는 클라우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등 기존 IT 사업 경험을 데이터센터 운영에 접목한다. 트래픽 최적화와 보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술적 신뢰도와 운영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효성의 데이터센터 사업 구상은 2017년 데이터센터 태스크포스(TF) 구성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서기 전이었지만 조 회장은 데이터센터를 미래 산업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보고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검토했다.

싱가포르 소재 STT GDC와의 협력은 2019년 서울에서 열린 조 회장과 브루노 로페즈 STT GDC 대표이사 겸 그룹 CEO의 만남을 계기로 구체화됐다. 양측은 데이터센터가 AI와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성장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기업호감도 첫 60점 돌파 국제경쟁력 상승폭 최대

상의 경제 기여·사회적 가치 등 고평가

국민들이 국내 기업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가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의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에 대한 평가도 개선되면서 기업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호감지수(CFI)' 조사 결과 기업호감도가 60.1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보다 3.9점 상승한 수치로 2003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60점을 넘어섰다.

기업호감지수는 생산성·기술개발, 경제성장 기여, 국제경쟁력, 기업문화, 지역사회공헌, 친환경 경영, 윤리경영 등 7개 항목과 전반적 호감도를 종합해 산출한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의미다.

올해는 모든 평가 항목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국제경쟁력은 66.2점으로 전년보다 6.8포인트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친환경 경영은 54.8점으로 4.1포인트, 생산성·기술개발은 67.1점으로 3.6포인트 상승했다. 생산성·기술개발은 7개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윤리경영은 47.1점으로 전년보다 3.1포인트 개선됐지만 유일하게 50점을 밑돌았다.

기업에 호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국가 경제 기여'가 4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20.3%), 제품·서비스 만족도(17.3%), 사회공헌 활동(7.3%), 친환경 경영 실천(6.0%)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소비자 보호 미흡(18.6%),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17.1%), 사회공헌 미흡(17.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이미지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86.3%에 달했다. 이 가운데 24.6%는 가격과 품질보다 기업 이미지와 호감도를 우선 고려한다고 답했다.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응답자의 85.6%는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58.6%, 2025년 74.0%에서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현재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53.5%가 지속적인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4%, 기업 본연의 경제적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7.1%에 그쳤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위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TV시장 침체 장기화... 전자업계, 생존방식 달라졌다

삼성 프리미엄·중저가 시장 동시 공략
LG 상업용 디스플레이·구독 사업 확대

TV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전자업계의 생존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가격 경쟁과 수요 둔화가 맞물리며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프리미엄 제품 강화와 기업간거래(B2B) 확대 등 수익 구조 다변화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TV 패널 수요가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중국 TV 제조업체들이 사상 최저 수준의 가격에 패널 재고를 대거 확보하며 구매량이 급증했지만, 최근 공급망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완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수요 둔화 속 삼성전자는 미니LED TV를 앞세워 프리미엄과 중저가 시장을 동시

에 공략하는 이원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니LED TV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보다는 화질 측면에서 한 단계 아래로 평가받지만,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TV의 한계를 보완해 명암비와 밝기를 크게 개선한 제품이다.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삼성전자는 중국 하이센스와 TCL이 미니LED TV를 주력 제품으로 앞세운 데 대응하기 위해 미니LED 라인업을 세분화하고 있다. 최상위 화질을 구현한 프리미엄 모델 'R95 H'와 일부 사양을 조정한 실속형 모델 'R85H'를 함께 출시하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또한 55인치 신형 미니LED TV를 2000달러(약 270만원) 미만으로 선보이는 등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가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경기장과 기업,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상업용 디스플레이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리미엄 상업용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집약한 대표 제품은 초고화질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LG 매그니트'다. 해당 제품은 최근 기업 로비와 컨트롤룸, 방송 스튜디오, 고급 리테일 공간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오피스 확산, 기업·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LG전자는 제품 판매를 넘어 구독형 서비스와 유지관리 사업으로 수익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자체 통합 운영 플랫폼인 'LG 비즈니스 클라우드'를 전면에 내세워 상업용 디스플레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LG 비즈니스 클라우드는 원격으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관리하고 콘텐츠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아울러 'LG 케네티드케어'는 디스플레이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예상 전력 비용을 분석하는 기능까지 제공한다. 또 고장이 발생하기 전 이상 징후를 감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정비 서비스도 지원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완화 움직임이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낮추며 공급망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비용 안정화와 중동 지역 수요 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와 물류비, 부품 가격 등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TV 제조사들의 가격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소비 심리 회복 여부가 업황 반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대한상의-국민통합촉, 성장·통합 선순환 방안 모색

최태원 회장, 이석연 위원장 면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통한 성장과 통합의 선순환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이 위원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차이를 좁혀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경제가 받쳐줘야 대화와 타협할 여유가 생긴다”며 “성장 동력을 높이는 일이 곧 통합의 토대를 다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 첫번째)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성장'과 통합의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어 “기업이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적

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매년 개최해 온 '사회적 가치 페스타'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매년 개최해 온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올해 9월에도 열린다”며 “통합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성장과 경제주체 간 조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낡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대한상의가 전달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대한상의에서 최 회장과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주) 부회장)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 위원장과 전지명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원관희 기자



metro



metro

중앙 계열사 회생신청... 저축은행·캐피탈 1137억 회수 비상

JTBC 디폴트 여파 금융권 확산
계열사 법정관리로 채권 회수 차질
총당금 부담에 수익성 악화 우려
일부 저축은행 순익 타격 불가피
캐피탈사는 조달시장 경색 부담
BBB급 중심 유동성 압박 가능성



서울 마포구 JTBC 사옥 내부 이미지. /뉴스시스

중앙그룹 계열사가 회생절차를 신청(법정관리)한 가운데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가 떠안은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총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캐피탈 업권은 시장 경계감 확대에 따른 유동성 악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그룹과 관련한 저축은행·캐피탈 업권의 총 위험노출액은 1137억원 규모다. 저축은행이 340억원, 캐피탈사가 79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는 원금 회수 지

연, 총당금 추가 적립, 건전성 지표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중앙그룹 계열사인 JTBC는 206억원의 유동화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이를 기점으로 중앙홀딩스, 콘텐츠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 계열사 4곳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하루

뒤 JTBC도 추가로 회생 신청을 냈다. 회생 신청 여파는 금융권의 잠재 부실 리스크로 번졌다. 저축은행 업권에서 중앙그룹 익스포저를 보유한 곳은 총 10곳이다. 그 가운데 JT친애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KB저축은행 3개사가 업권 전체(340억원)의 약 40%에 달하는 138억원의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다.

사별로 살펴보면, JT친애저축은행은 JTBC에 대해 전자단기사채(전단채) 50억원 규모의 익스포저를 지니고 있다. 푸른저축은행은 중앙일보엔프에 대출 채권 50억원, KB저축은행은 휘닉스중앙제주에 대출 채권 38억4000만원을 갖고 있다. 캐피탈사 중에서는 하나캐피탈이 가장 큰 규모의 익스포저에 노출됐다. JTBC 200억원, 콘텐츠리중앙 200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KB캐피탈이 중앙일보엔프에 약 160억원, 그 외 캐피탈사가 중앙일보에 237억원의 대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저축은행 업권의 단기 수익성 악화다. 중앙그룹 회생 신청 여파가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JT친애저축은행의 경우 JTBC 회생에 따라 전액 손실을 가정하면, 추가로 적립해야 될 총당금은 최대 49억6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는 수준이다. 캐피탈사의 경우 익스포저 비중이 전체 자본총계의 1~2% 수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담이 적은 실정이나 시장 경계감 확대에 따른 위험 부담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신용평가측은 "캐피탈업권의 경우 중앙그룹발 신용위험 사태가 시장의 경계감 확대에 이어질 경우 BBB급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조달조건 저하 등 유동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최근 캐피탈업권의 기업·투자금융 내 중·저신용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모사채를 비롯한 보유 기업·투자금융 자산의 건전성 저하, 대손비용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재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is4187@metroseoul.co.kr



신현송 "시장 가격에 흘리지 말라"... 유가發 하반기 물가부담 경고

(한국은행 총재)

한은, 유가 안정에도 물가 경계
고유가 부담, 하반기 전이 우려
공업제품·서비스값 상승 가능성
임금 압력 겹치면 물가 부담 확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이 하반기부터 석유류를 넘어 공업제품·서비스 등 근원물가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국제유가가 일부 안정되더라도 누적된 비용 압력이 시차를 두고 물가 전반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단기 시장가격보다 중장기 물가 흐름을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시장 가격에 흘리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자체를 봐야 한다"며 "앞으로의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2월 2.0%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안정됐지만,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이후 빠르게 높아져 5월 3.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5월 2.5%로 올랐고, 생활물가는 3.3%까지 상승했다.

물가 상승의 직접적 원인은 석유류다. 5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2% 뛰었다. 항공료와 단체여행비 등 유가와 연계성이 높은 서비스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근원물가 상승폭을 키웠다.

신 총재는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0% 넘게 상승했고 근원물가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흐름을 보이면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 간접효과 시차 두고 온다

문제는 유가 안정에도 물가 부담이 곧바로 사라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진전으로 국제유가 상승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지만,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와 국제유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여기에 고유가·고환율로 높아진 비용 압력이 시차를 두고 여타 품목 가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영주 한은 물가고용부장은 "아직까지는 유가 충격이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간접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하반기 이후 물가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 상승은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오르는 직접효과가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생산·유통비용 상승이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간접효과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국제유가 상승 직후에는 석유류 가격이 먼저 반응했지만, 이후 공업제품과 서비스, 전기·가스 가격으로 충격이 순차적으로 확산됐다. 김 부장은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약 14~18개월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반응했다"며 "유가 충격의 영향이 간접효과를 통해 물가 전반에 반영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 분석에 따르면 라우 전쟁 직후에는 유가 상승의 직접효과가 컸지만, 약 6개월 이후부터 간접효과 기여도가 커져 1년간 지속됐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뒤에도 간접효과는 오히려 확대됐고,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약 20%를 설명했다. 한은이 유가의 단기 하락보다 물가 압력의 지속성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다.

◆ 통화정책 '확신' 전까지 경계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새 변수로 떠올랐다. 한은은 반도체 등 IT 기업 실적 호조가 소득·자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일부 IT 대기업의 성과급 확대가 산업 전반의 임금 상승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목했다. 올해 1분기 IT부문 특별급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장은 "향후 물가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는 IT 특별급여가 산업 전반의 임금 상승으로 얼마나 확산될지 여부"라며 "특별급여 규모가 이례적으로 확대될 경우 일회성 보상을 넘어 향후 임금협상과 임금 기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액급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금 상승이 본격화되면 비용 측 압력과 수요 측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주희기자 gh471@metro



중전 국면에도 방공 수요 여전... K-방산 수출 탄력

천공-II 실전 성과에 추가 발주 기대
인니·말레이 등 아시아 논의 확산
전차·전투기·자주포로 수출 확대

중동 지역 전쟁이 중전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K-방산에는 '전후 특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쟁을 계기로 방공망 보강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천공-II를 비롯한 한국산 방공체계와 항공·지상무기 수출 논의가 중동을 넘어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중전 이후에도 이란의 미사일 역량은 여전하고 헤즈볼라·후티반군 위협도 남아 있어 중동 국가들의 다중 방공망 보강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주목받는 무기체계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공-II(M-SAM II)다. UAE 배치분이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탄도·순항미사일 공격에 96% 수준의 요격 성과를 거두면서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천공-II는 LIG D&A가 체계종합을,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레이더와 발사대·차량을 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이미 천공-II를 도입한 가운데 DS투자증권은 쿠웨이트·카타르 등 신규 시장과 기존 도입국의 추가 발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천공-II 2개 포대 구매의향서(LOI)를 전달했고, 말레이시아도 도입 후보군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UAE·사우디아라비아와 KF-21 수출 및 5·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이라크와 약 250대 규모의 K2 전자수출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형 K2ME 개발이 완료돼 정세 안정화 이후 협상 재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장갑차·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IG D&A는 독일 라인메탈 에어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NATO 방공 시장 공략에 나섰다. 양사는 합작회사 설립과 단거리 방공미사일 공동개발을 검토하며 다중 방공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



설계 등 주요직무 '세 자릿수' 선발

>> 1면 'SK하이닉스...'서 계속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들의 경쟁력은 특정 학위나 정형화된 스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채용 기준을 혁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번 수시 채용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이끌어 갈 '설계'를 비롯한 주요 직무에서 수시채용으로 이례적으로 '세 자릿수' 단위의 대규모 선발을 진행한다.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적극 채용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잠재력을 지닌 신입사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원을 대거 선발해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에 글로벌 AI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입사원 수시 채용 서류 접수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상세 전형 일정은 SK하이닉스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고부가가치’ OLED로 체질개선... 재무건전성 유지가 관건

⑥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적용분야 확대에 대응해 사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LG디스플레이의 올해 연간 실적이 매출 25조1620억원, 영업이익 1조189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 대비 2.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130% 이상 증가하며 수익성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OLED 중심 사업 재편에 따른 대규모 투자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중국 업체들의 기술 추격도 거세지고 있어 재무 안정성 확보와 시장 주도권 유지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 게이밍·차량용 OLED 강화... 기술 경쟁력 입증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글로벌 OLED 시장 규모는 올해 768억달러(약 119조원)에서 2034년 3225억달러(약 503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시장 확대에 힘입어 LG디스플레이는 사업 구조를 OLED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OLED 매출

연매출 25.1조, 영업이익 1.1조 전망 5년 새 OLED 매출 비중 29% 늘어 적용 분야, 노트북·태블릿 등 확대

대만 게이밍 OLED 로드쇼서 차세대 제품, BFI 기술 공개

C&BIS 인증으로 차량용 경쟁력 ↑ 中 저가공세 맞서 게이밍 중심 전략

1.1조 규모 OLED 인프라 투자 계획 차입금·사채 13.7조... 전년비 1조 ↑

비중은 2020년 32%에서 지난해 61%까지 확대됐다. 저수익 제품 비중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OLED 사업을 강화하며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진입장벽 구축에 나선 것이다. OLED 적용 분야도 스마트폰 중심에서 노트북, 태블릿, 게이밍 모니터 등으로 확대되면서 IT용 OLED 시장 성장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지난 4일 대만에서 열린 게이밍 OLED 로드쇼에서 39인치 5K2K 게이밍 OLED와 27인치 RGB 스트라이프 OLED, 24.5인치 게이밍 OLED 등 차세대 제품을 공개했다. 또한 글로벌 디스플레이 표준 인증기관인 VESA

의 최고 수준 HDR 인증인 ‘디스플레이 DR 트루블랙 1000’을 구현한 게이밍 OLED도 선보이며 기술 경쟁력을 과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LG디스플레이는 패널 기반 블랙 프레임 삽입(BFI) 기술을 처음 공개했다. BFI는 영상 프레임 사이에 매우 짧은 검은 화면을 삽입해 사람의 눈이 인식하는 잔상을 줄이는 기술이다.

LG디스플레이의 패널 기반 BFI는 영상 처리 단계가 아닌 OLED 패널 내부에서 픽셀의 발광과 소등을 직접 제어하는 방식이다. 패널 단에서 각 픽셀의 점등·소등 타이밍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모션 표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기존 BFI 기술의 단점으로 꼽혔던 밝기 저하와 입력 지연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OLED의 빠른 응답속도와 자발광 특성이 결합되면서 기술 효과가 극대화되는 설명이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는 자동차 전장 시스템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 품질 및 신뢰성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이달 인증기관 C&BIS로부터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국제 표준인 ‘오토모티브 스파이스(ASPICE)’ 레벨2(CL2) 인증을 획득하며 차량용 디스플레이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자동차 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아울러 차량 내 디스플레이의 역할 또한 단순한 정보 표시를 넘어 인포테인먼트 및 차량 제어를 아우르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링 국제 표준(ISO-SAE 21434)’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ASPICE까지 연달아 확보하며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 패널 업체들의 기술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OLED 시장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태블릿·노트북용 OLED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는 과거 3~4년 수준에서 현재 2년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러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기술 추격에 맞서 LG디스플레이는 게이밍 모니터 시장을 중심으로 OLED 대중화 전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 OLED 패널과 달리 편광판을 제거하고 반사 방지 필름을 적용한 ‘OLED SE’ 패널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제조 원가를 낮추는 동시에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해당 기술을 지난 1월 열린 CES 2026에서 처음 공개했다. 당시 정철동 사장은 “OLED의 프리미엄 가치를 높여나가는 동시에 가격을 낮춘 제품”이라며 OLED 시장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OLED로 사업재편 순항, 수익성 제고 기대

업계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OLED 중심 체질 개선을 통해 실적 반등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수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익성 회복이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향후 투자 부담을 관리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4월 약 1조1060억원 규모의 OLED 신기술 관련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시했다. 투자 기간은 오는 2028년 6월까지로, 회사는 OLED 기술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성장 기반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재무 부담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LG디스플레이의 올해 1분기 차입금 및 사채는 13조7351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6641억원) 대비 1조71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차입금비율도 141%에서 157%로 16%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혁신을 위해 자체 개발한 AI 어시스턴트 ‘하이디’를 지속 고도화 중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외부 AI 어시스턴트 구독 비용을 대체해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하이디 도입을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하반기에는 주요 고객사인 애플 향 OLED 패널 출하 확대와 인건비 감소 효과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여기에 북중미 월드컵 등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 따른 TV·IT 기기 수요 확대와 애플의 신형 모바일 제품 출시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OLED 패널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OLED 중심 사업 재편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정철동 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수익성 중심 경영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 사장은 취임 당시 “실적 턴어라운드보다 무엇보다 급선무”라며 “고객과 약속된 사업을 철저히 완수해 내고, 계획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가 인증기관 C&BIS로부터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인증인 ‘ASPICE(오토모티브 스파이스)’의 레벨2(CL2, Capability Level 2)를 획득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글로벌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만 게이밍 OLED 로드쇼’를 열고 최첨단 게이밍 OLED 제품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이 모니터용 OLED 패널 중 최고 해상도인 5K2K 화질을 구현하는 39인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LG디스플레이

답이 있다면 지구 반대편까지



SK 선대회장 | 최 종 현

- 1979 | 2차 오일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산 5만 배럴 원유 공급 확보
- 1984 | 무자원 산유국 첫 발견, 북예멘 마리브 광구 유전 발견
- 1998 | 아시아 지역 새로운 도전, 베트남 15-1광구 석유 개발 시작
- 2010 | 페루 LNG 가스생산, 수송, 수출 수직계열화 완성
- 2014 | 안정적인 LNG 확보를 위한 미국 우드포드 가스전 지분 투자
- 2018 | 독자 운영 및 자체 기술로 남중국해 17/03 광구 원유 발견 성공
- 2022 | 동남아 자원 거점 확대, 말레이시아 SK427 광구 운영권 확보
- 2025 | 자원 영토 확장, 인도네시아 3개 탐사 광구 지분 확보
- 2026 | 호주 바로사 가스전 LNG 첫 도입, 20년간 안정적 공급

작은 가능성에도
수천 미터를 파 내려가고
먼 미래를 위한 일일지라도
주저 없이 바다를 건넌습니다

지난 6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의 답을 찾아갑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韓 평화부터 잠수함 사업까지…李, G7서 외교 광폭 행보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정세 논의, 독일, 경제·산업 등 협력 공감대 캐나다, 에너지 공급망 확대 뜻모아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외교 행보를 넓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에 위치한 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브라질(루이스 이나시우 룴라 다 시우바 대통령), 인도(나렌드라 모디 총리), 케냐(윌리엄 루토 대통령)에 이어 포도준으로 입장한 이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인사했다. 두 사람의 대면은 지난 4월 초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기념촬영을 위해 정상들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 약 30초간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장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 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다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앞줄 왼쪽부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압델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뉴시스

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식 만찬장에서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아 여러 대화를 주고받았다. 중동 정세와 한반도 평화 관련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촬영 직후 이어진 G7 정상회의 첫 번째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확대세션 전후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와

의 양자 회담에서 경제·산업·과학기술·안보 등 제반 분야 협력 증대에 공감하며 중동 전쟁 종전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과 독일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양국 정상은 방산 분야에서 적극적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메르츠 총리는 공감을 표하면서 “독일로서도 EU 회원국

간 협력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 메르츠 총리는 오는 10월 말 방한 예정이라면서 방독 초청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경제·산업·방산·과학기술·국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메르츠 총리는 10월 아태비즈니스회의의 계기에 방한할 계획임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방한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방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에게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가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와대는 이달 초 대통령 전략 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캐나다에 파견하는 등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해 여지를 남겼다.

이외에도 한국과 캐나다 정상은 중동 정세 및 이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원유, LNG,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그 과정에서 첨단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 및 기술력을 보유한 캐나다 간에 잠점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李 대통령 “AI 혜택 전 인류와 공유”…국제협력 강조

확대회의 세션 참석해 AI 비전 제시
공적 재원 활용 민간 투자 촉진 등
수원국·공여국 간 발전 방안 모색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확대회의의 첫 세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에게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G7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과 국제 연대 재건이라는 제목의 첫 세션에서 개발협력을 통한 수원국의 자립 역량 제고와 수원국(수혜국)과 공여국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브라질 등 5개 초청국 정상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 및 시디 울드 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은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임에도 많은 개도국들이 이러한 기회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 원조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을 짚으며 “민간 투자를 통해 수원국에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와 파트너국의 국내 재원이 함께 동원되어야 하며, 공적 재원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적 재원을 활용해 수원국 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형 공공재’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코이카(KOICA)가 최근 5년간 인도

네시아에서 농업, 에너지, 환경 분야의 12개 현지 스타트업에 지원하고, 100만달러의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5000만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격차가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수원국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AI의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소개했다.

아울러 “개발 협력의 성과는 투입된 재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수원국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코이카와 우리 기업이 함께 설립한 ‘IG직업 훈련학교’ 사례를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데 나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세션이 끝난 후 ‘상호 호혜적 국제파트너십’, ‘암 퇴치’, ‘에볼라 대응’ 등 3개 문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G7과 함께 이들 문서 모두에 지지를 표명하며, 개발협력과 보건안보 분야에서 G7 및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재확인했다. /서예진 기자

국힘 장동혁 지도부 소청 강행에 반발 확산

서울 등 6개 지역 선거무효 소청 제기
비당권파·친한계 의원들 비판 목소리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소청을 밀어붙이면서, 의원총회 시작부터 파열음이 일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를 나누지 못한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5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광주전남 등 6개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장 대표는 충북 등에 대한 소청까지 검토하며 재선거 여론 물이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 소장파나 친한(친한동

훈)계 등 비당권파 의원들은 장 대표가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피하려고 ‘재선거’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날(16일) 당내 초계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측이 정 원내대표에게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이날 의총이 개최됐다.

이날 의원총회는 정 원내대표 발언 직후 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하지만 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 의원이 비공개 직전 공개 발언을 신청하면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송 의원은 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직후 손을 들고 “공개 발언을 신청한다”고 말했고, 다른 의원들이 “비공개로 하자”고 외쳤다. 하지만 송 의원은 송 의원은 “공개 발언할 사람은 공개 발언하고, 비공개로 할 사람은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발언 기회를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의총 사회를 맡은 박상웅 의원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지만 송 의원은 “어차피 다 공개될 텐데”라고 주장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그러면 나가서 하시오. 나가서”라고 말하자, 송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당이 대내외적으로 불통에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당 모습이 된 것 아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강승규 의원은 “어릴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느냐. 최악은 무슨 최악이냐”고 반박했고, 다른 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태며 설전이 이어졌다. 결국 송 의원의 공개 발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는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직접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권영진 의원은 발언 기회를 신청하고 장 대표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청 기한이 이날까지만 만큼, 의원총회는 주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 도중 취재진을 만난 의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쟁점은 소청 범위다. 당초 최고위에서 논의된 6개 지역 외에 전국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특히 장 대표는 소청 범위를 전국 16개 지역으로 넓혀야 한다고 했고, 정 원내대표는 선거 소청은 참정권 침해가 실제 있는지 파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 기한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인 만큼, 장 대표의 거취 논의는 중점적으로 다루지지 않은 모양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함께 만들어갈 모든 이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모두의 일상이 더 자유로워지도록
각자의 가능성이
더 넓게 펼쳐지도록

하나가 모두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모두의 도전과 성장 응원

-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패럴림픽 국가대표 및 종목·선수 후원)
- 시각장애인 K리그 AI중계서비스 도입(2026 에디슨 어워즈 수상)

장애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예술가 미술 공모전 개최

재활부터 자립까지 장애인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 재활·학습 보조 기구 지원 및 취업 교육
- 노후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차량지원



증시 호조에 퇴직연금도 호황... '비보장형' 병행하면 유리

금감원, 1분기 말 42개 사업자
DC형 1년 수익률 평균 13.98%
원리금보장 상품은 2.96% 그쳐
"비보장형, 장기 투자시 성과 커"

코스피지수가 '9000피'를 목전에 둔 가운데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증시 호조에 힘입어 저조했던 원리금비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고, 주식 투자 경험이 없어도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하며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서다.

17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42개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1년 운용 수익률 평균은 13.98%로 집계됐다. 5년 수익률 평균인 4.33%의 3배를 넘겼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 평균은 2.96%에 그쳤지만, 비보장형 수익률은 25%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스시스

금)의 1년 운용 수익률의 평균은 12.84%로 집계됐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2.84%에 불과했지만, 비보장형 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22.84%에 달했다. 반면, 확정기여형(DB)형의 비보장형상품 운용 수익률 평균은 8.96%에 불과했다. DB형은 사업주가 운용방식을 지정하고 일정액을 분배하는 방식인 만큼, 고위험

상품의 선택률이 낮았던 영향이다. 최근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급등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퇴직연금은 특정 주식에 직접투자는 불가하지만, 주식형펀드나 다수의 주식을 혼합해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등 신탁상

품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를 추종하는 비보장형상품의 수익률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가입자라면 위험도와 투자성향에 따라 '디폴트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 각 운용사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을 혼합해 구성하는 디폴트옵션은 원금을 보장하는 저위험 상품부터 위험자산에 적극 투자하는 고위험상품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한번 지정하면 재지정할 필요 없이 빈번투자 되는 것 또한 주요한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시 적정 수준의 비보장형 상품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행권의 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도 낮게 형성된 만큼,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위험자산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의 한 자산운용(WM) 담당자는 "은행권 금리 하락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도 하락하면서,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원리금비보장형 선택이 필요해졌다"라

며 "비보장형 상품은 기대수익률이 높고, 단기간 내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장기 투자 시에는 보장형 상품보다 높은 성과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연금 운용 시에는 과세에 유의해야 한다. 5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높은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퇴사나 이직 등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개인형IRP로 이전되는데, 개인형IRP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0~50%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DC형을 퇴직연금을 적극 운용하는 경우 개인형IRP의 추가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형IRP를 최대로 납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148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드사 '포용금융'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삼성, 최대 5000만원 최저이자 4.90%
현대, 3년만에 재개... 최저금리 4.5%

카드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포용 금융 기조에 발맞추는 동시에 카드론 외 주요 수익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신한·KB국민·현대·우리카드 등 주요 전업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가장 최근 소호 대출 상품을 출시한 곳은 삼성카드다. 삼성카드는 최대 금액 5000만원 한도, 연 최저 4.90% 이자율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선보였다. 최대 대출 기간은 60개월이다.

현대카드도 앞서 중단했던 개인사업자 대출을 3년 만에 재개했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4.5~19.5%다.

카드사들의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배경은 정부의 포용 금융 기조 때문이다.



Chat gpt가 생성한 카드사들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출시 관련 이미지.

현대카드 관계자는 "정부의 포용 금융 기조와 함께 은행 대출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상품 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수익 다각화 측면도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카드론에 의존해 왔던 카드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섰다. 실제 개인사업자 대출은 카드론과 달리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규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

하나카드는 개인사업자대출 상품과 관련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내부 검토를 진행했으나 출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 역시 현재 사업자대출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대출 상품은 없다"며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출시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건전성 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 상품보다 연체율이 높아 대출 심사 강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다른 대출 상품 보다 대출 심사 관련 인력 배치 등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출시하려면 대출 심사 인력이 있어야 하고 상품 개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대출과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에 개관한 씨밋 목동 라운지의 상담공간 '유담'의 전경. /대우건설

대우건설, 30조 목동 재건축 수주 도전장

총 5만세대... 8·11·14단지 수주전
고객경험 공간 '씨밋 목동 라운지'
"하이엔드 주거의 가치와 비전 공유"

5만 세대 신축으로 탈바꿈하는 목동 재건축 수주전이 본격화됐다. 재건축 사업 규모만도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우건설은 8·11·14단지에 도전장을 던졌다.

대우건설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씨밋(SUMMIT)'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고객 경험 공간 '씨밋 목동 라운지'를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씨밋 브랜드의 전면적 리뉴얼 이후 처음 선보이는 브랜드 라운지다.

형남호 대우건설 강서영업지사 소장은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목동에서 대우건설이 제안하는 하이엔드 주거의 가치와 비전을 고객과 공유하고 점점을 확대하기 위해 라운지를 마련했다"며 "기존 홍보관과 달리 대우건설의 스토리를 전달하고 목동주민과 교류·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라운지는 한국 전통적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선비와 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시와 음악을 나누며 사유와 담론을 교류하던 문화적 장소인 '이회(雅懷) 콘셉트를 적용했다.

라운지는 ▲고객을 맞이하는 현관 '접빈'과 품격 있는 리셉션 '영빈' ▲대면형 주방과 장식 선반을 중심으로 문화적 깊

이를 더하는 취향 공유 공간 '서거' ▲최신 기술의 시청각 자료를 통해 생각을 공유하는 담론 공간 '청음' ▲독립된 개별실에서 깊이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심화상담 공간 '유담' 등으로 구성됐다.

목동 재건축은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완료될 경우 세대수만도 4만7409세대에 달한다.

대우건설은 라운지를 전초기지로 삼아 적극 수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단 상대적으로 사업진행이 빠른 신정동에서 8, 11, 14단지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제시한 목동 씨밋의 경쟁력은 ▲초고층 설계특화 ▲외관 특화 ▲공용부/조경 특화 ▲커뮤니티 특화 ▲단위세대 특화 ▲주차 특화 등이다.

형 소장은 "14개 단지가 한꺼번에 재건축을 진행해 서로 랜드마크 단기가 되기 위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관 특화에도 공을 들일 것"이라며 "최고 49층 설계에 맞춰 초고층 설계 특화와 함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글로벌 구조설계사와도 협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커뮤니티가 아파트의 시세를 좌우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만큼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현재 0.4~0.8대에 불과한 평균 주차대수 역시 세대당 2대 이상을 확보토록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업 조건은 단지별로 아직 고심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사 매각채권 책임 확대 '불법추심 차단'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추심과 채무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이후 양수인의 채권관리 및 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채권 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은 개정 절차를 거쳐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인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BNK부산은행 '우리동네 기후쉼터' 운영

BNK부산은행은 부산광역시와 '우리동네 기후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름 및 겨울철 '기후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쉼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BNK부산은행은 기존 하절기 '무더위 쉼터'를 '우리동네 기후쉼터'로 확대 개편하며, 영업점을 시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제공한다. 인근 지역민들은 여름철 폭염뿐 아니라 겨울철 한파에도 가까운 BNK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된다. /안승진 기자

이원진 사장 '수익구조' 주목

(VD사업부장)

TV·가전사업 돌파구 찾는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이 사장, VD사업부장으로 회의 참석 'AI 통합기업' 강조... 첫 시험대 올라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 강화 등 논의



가 통상 연말 정기 인사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사업부장 교체는 이례적이다. 전임 용석우 사장은 DX부문장 보좌역으로 이동해 AI와 로봇 등 미래 사업 관련 자문 역할을 맡게 됐다.

이원진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사진)이 17일 취임 후 첫 글로벌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5월 원포인트 인사로 TV 사업 지휘봉을 잡은 뒤 처음 열리는 회의로, 적자로 돌아선 TV·가전 사업의 하반기 전략이 논의되는 자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경기 수원사업장에서 노태문 디바이스경영(DX)부문장 주재로 VD·생활가전(DA)사업부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16일 MX사업부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전략회의의 이틀째 일정이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부문장과 주요 경영진, 해외 법인장이 모여 상반기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사장이 VD사업부장에 오른 뒤 처음 맞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인사 배경에는 TV·가전 사업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VD·DA사업부는 지난해 4분기 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1000억원 손실에서 적자 폭이 확대됐고, 연간 기준으로도 2000억원 손실을 내며 전년도 1조7000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 1위를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TCL과 하이센스 등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OLED 등 프리미엄 제품군까지 경쟁이 치열해졌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글로벌 TV 시장이 2028년까지 연평균 1.7%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장은 구글코리아 대표와 구글 북미 광고솔루션 부사장을 지낸 마케팅·플랫폼 전문가다. 2014년 삼성전자에 합류

한 뒤 글로벌마케팅실장과 북미총괄 등을 거쳤으며,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 사업을 맡아왔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비스비즈니스팀장도 함께 맡게 됐다.

삼성전자는 삼성 TV 플러스 등 서비스 사업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삼성 TV 플러스의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지난 2월 1억명을 넘어섰다. 현재 30개국에서 4300개 채널과 7만6000여 편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별 판매 전략과 AI TV 판매 확대 방안,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TV 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판매 중심 사업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칩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AI 통합 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한 바 있다. 서비스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TV 사업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삼성전자는 18일 전영현 부회장 주재 DS부문 회의를 끝으로 사흘간의 글로벌 전략회의를 마무리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포스코가 17일 광양제철소 전기로 공장을 준공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군 전남도지사, 권항엽 국회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 /포스코

포스코, 국내 최대규모 전기로 준공

저탄소 철강 기술·생산체제 고도화

포스코가 전남 광양에 연산 250만 톤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탄소저감 강제 생산에 나섰다. 강화되는 글로벌 탈탄소 규제에 대응해 저탄소 철강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수소환원제철(HyREX)로의 전환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포스코는 17일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광양 전기로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국내의 탈탄소 정책이 부응하고 고객사의 탄소저감 제품 공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전기로 신설에 착수했다. 이번에 준공된 전기로는 단일 설비 기준 국내 최대 규모로, 연인원 27만 명의 공사 인력과 약 6000억원이 투입됐다.

철광석과 석탄(코크스)을 고로에 투입해 쇳물을 생산해 전로에서 정련하는 고로-전로 방식은 고품질 철강의 대량 생산

이 가능하지만 탄소 배출량이 높다. 반면 전기로는 스크랩(고철)을 재활용해 고로 대비 최대 약 75% 탄소감축이 가능하다.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오늘 준공한 전기로는 단순히 하나의 설비를 추가한 것이 아닌 탈탄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포스코는 글로벌 고객사의 저탄소 강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광양제철소 전기로 준공은 친환경 산업으로 진화하는 철강산업의 미래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과 수급 안정화를 지원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이노텍, 반도체 기관 사업 본격화

자율주행·AI 서버 등 고부가 시장 진입 이달 베트남 반도체 기관 신공장 착공

LG이노텍이 반도체 기관 사업을 2031년까지 영업이익 1조원 규모로 육성한다. 통신용 기관에서 확보한 세계 1위 기술력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서버용 시장 진입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조지태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전무)은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 본사에서 열린 미디어 테크 데이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새로 열리는 기관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2031년까지 패키지솔루션사업을 매출 3조원, 영업이익 1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패키지솔루션사업은 지난해 매출 1조7200억원, 영업이익 128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18% 늘었고 영업이익은 82% 급증했다. 전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19%로, 적은 매출로 높은 수익을 내는 고부가 사업이다.

성장의 핵심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기관이다. PC와 AI 서버의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성능 칩에 쓰이는 대형 고부가 기관으로 면적이 넓고 층수가 많아 공정 난도가 높은 만큼 부가가치도 크다.

LG이노텍은 2024년 말 글로벌 고객사에 PC용 기관 양산을 시작했으며 3분기부터 같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PC용 CPU 제품 양산에 들어간다. 서버용은 용도에 따라 진입 시점을 구분했다. 서버 네트워킹용은 올해 하반기, 학습·추론용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2028년까지 자율주행과 AI 서



LG이노텍 패키지솔루션사업부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정호 패키지솔루션마케팅담당(상무), 조지태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전무), 명세호 패키지솔루션개발담당(상무), 남상혁 패키지솔루션연구소장(연구위원). /LG이노텍

비용 등 고부가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AI 시장이 학습 중심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면서 CPU 수요가 늘고 있다. 후발주자인 LG이노텍으로서는 새 진입 기회를 맞은 셈이다.

LG이노텍은 이달 베트남에 반도체 기관 신공장을 착공한다. 지난 4일 체결한 베트남 1차 투자 규모는 1조원으로, 무선주파수 패키지형 시스템(RF-SiP)과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FC-CSP) 등 통신·모바일용 기관이 중심이다. 서버용 기관 투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확정 시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베트남과 함께 구미 등 국내외 생산지를 검토해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RF-SiP 기관은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 무선통신 부품을 하나로 묶은 통신용 반도체를 메인보드와 연결한다. LG이노텍은 2011년 핵심 증인 코어를 제거한 코

어리스 기관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 두께를 기존보다 20% 줄였다.

여기에 신호지연이 적은 소재와 특수 처리한 구리를 적용해 송수신 과정의 신호 손실량도 70% 낮췄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LG이노텍은 10년 연속 글로벌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주요 고객사 기준 점유율은 지난해 약 65%에서 올해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RF-SiP 기관은 기술 고도화도 진행 중이다. LG이노텍은 구리 기둥 위에 솔더볼을 얹는 코퍼 포스트(Cu-Post) 공법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 부품을 더 촘촘하게 배치하고 기관을 얇게 만들었다. 그 결과 쌀알 두 개 크기 기관에 무선통신 부품 100여 개를 담은 세계에서 가장 얇은 5G 용 기관을 구현했다.

남상혁 패키지솔루션연구소장(연구위원)은 "차세대 코퍼 포스트 기술로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LS전선, 싱가포르 전력청 프로젝트 수주

1400억 규모 초고압 케이블 공급

LS전선이 싱가포르 초고압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전력망 시장 입지를 강화했다.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약 1400억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LS전선은 400kV 및 230kV급 케이블을 공급한다.

LS전선은 LS에코에너지와 함께 2010년부터 싱가포르 초고압 케이블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양사는 축적된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국가 전력망 구축에 참여하며 핵심 공급사로 자리 잡았다.

LS전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고압 직류송전(HVDC) 케이블과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상용화한 기업이다. 유럽에서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HVDC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글로벌 전력망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관계사인 가온전선의 미국 자회사 LSCUS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수조원대 버스덕트 장기공급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형원 LS전선 에너지·시공사업본부장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전력 인프라에서 나온다"며 "LS전선은 AI 데이터센터 송전망부터 내부 배전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유럽 히트펌프 사업 순항

대규모 주거단지 연이어 수주

LG전자가 히트펌프 본고장인 유럽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수주를 잇따라 따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고효율 인버터 기술과 친환경 냉매, 현지 주거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앞세워 유럽 냉난방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갈레 푸에르타스 아르마스 지역의 1000여 세대 규모 주거단지의 냉난방 솔루션을 수주해 고효율 대용량 히트펌프

인 'LG 멀티브이아이' 설치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LG전자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설계-인증-설치 등 단계별로 현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글로벌 HVAC 기업들과의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주거용 레지던스인 '킹스 서클'과 '더 윈'에도 멀티브이아이와 멀티브이에스를 중심으로 500여 세대에 맞춤형 히트펌프 솔루션을 공급 중이다.

/차현정 기자

韓, 인도시장 공략 본격화... 투자·창업·거점 협력망 넓힌다

중기부, 韓-인도 벤처투자 및업

양국 VC협회, 첫 MOU 체결
코스포·인도상의, 스타트업 협력
K-파운더로 현지 진출 지원
중진공, 푸네 베이스캠프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인도와의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파트너간 시너지 강화, 시장 정보 및 노하우 공유, 인력 교류 등을 광범위하게 모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 벤처캐피탈협회는 17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연결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한-인도 벤처투자 및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약 99억 달러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형성하는 등 우리 벤처기업들이 놓쳐서는 안 될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 구르가온 하얏트 플레이스 구르가온 우디오그 비하르에서 인도상공회의소연합(FICCI), 유니콘인큐베이터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포

특히 이날 행사에선 한국 벤처캐피탈협회(KVCA)와 인도 벤처캐피탈협회(I VCA)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최초의 협력 사례를 만들었다.

두 단체는 MOU를 계기로 ▲양국 기업의 투자유치 및 진출 지원 ▲벤처생태계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 ▲투자자 간 네트워크 확대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투자자 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장은 "양국을 대표하는 벤처캐피탈협회 간 최초의 업무협약은 민간 투자 분야 협력의 의미있는 출발점이자 양국 벤처생태계를 연결하는 물꼬를 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가 벤처생태계 협력·교류를 확대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혁신 생태계로 함께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지난 15일에는 인도 구르가온에서 'K-파운더 네트워크 in 인도' 제1차 포럼도 열었다.

'K-파운더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창업가들의 자생적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결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현지에 먼저 진출한 선배 창업가와 국내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현지 시장 정보와 사업 경험 공유, 현지 파트너 협력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 중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K-파운더 네트워크 in 인도'는 지난 4월 발표했다. 중기부는 인도를 시작으로 프랑스,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중진공은 인도 마하리슈트라주 푸네에 있는 펴프리 친치와드 대학교(Pimpri Chinchwad University)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진공-푸네(KOSME-PUNE) 베이스캠프'를 이달 초 열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인도 진출과 현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L&C의 원목마루.

현대L&C

유럽 전자재 독점 공급 하이엔드 시장 정조준

유럽산 마루·수전 등 유통 나서

현대L&C가 수도권 재건축 단지와 강남권 하이엔드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전자재 B2B 영업에 적극 나선다.

기존 프리미엄 창호 레하우(REHAU)와 엔지니어드 스톤 칸스톤과 함께 유럽 원목마루와 수전을 추가한 전자재 B2B 통합 패키지를 전면에 내세워 영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 종합 전자재 기업 현대L&C는 최근 이탈리아 목재 전문기업 '플로리안(Florian)', 독일 욕실 자재 전문기업 '코이코(KEUCO)'와 각각 원목마루와 수전에 대한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L&C 관계자는 "수도권 재건축 단지와 신규 분양 읍면 시장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자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유럽 브랜드와의 독점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플로리안은 50년 넘게 원목 가공 사업을 이어온 업체로, 이탈리아 현지에서 100% 생산되는 프라임 AB(Prime AB) 등급의 참나무(Oak) 원목마루가 대표 제품이다. /김승호 기자

삼성, 갤럭시·가전 앞세워 '일상 건강관리' 시장 공략

파리 '비바테크 2026' 참가

삼성헬스 7.0서 생체징후 기능 선행
위치·냉장고·펫케어로 건강관리 확대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테크 무대에 헬스케어 앞세워 처음으로 발을 들였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위치, 냉장고, TV를 통합 건강관리 플랫폼 '삼성 헬스'로 연결해 병원 밖 일상에서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17일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스타트업·테크 박람회 '비바테크(VivaTech) 2026'에서 AI 기반 통합 건강관리 비전 '커넥티드 케어(Connected Care)'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바테크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럽 최대 규모의 테크 행사에서 삼성 헬스를 중심으로 한 통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2026' 삼성전 시판 미디어 파사드에 '삼성 헬스'의 5대 영역인 수면·활동·식이·마음 건강·생체 징후 아이콘을 표현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삼성전자

합 건강관리 경험을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비바테크에는 전 세계 40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행사는 '건강과 장수'를 포함한 8개 핵심 분야로 꾸러지는데, 삼성전자는 이 가운데 헬스

케어에 전면에 나섰다.

전시의 중심은 통합 건강 플랫폼 '삼성 헬스'다. 삼성 헬스는 수면과 활동, 식이, 마음 건강, 생체 징후 등 5대 영역에 걸쳐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며 갤럭시 스마트폰·위치와 연동된다. 이를 구현한 부스는 미디어 파사드와 '삼성 커넥티드 케어 에코시스템' 존, '오픈 케어 랩' 존 등 3개 구역으로 꾸러졌다.

특히 에코시스템존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위치, 삼성 헬스 앱이 하나로 연결돼 능동적이고 개인화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선보인다.

삼성 헬스는 이번 전시에서 7.0 신기능 5종을 새로 공개한다. ▲생체 징후(Vitals) ▲심장 건강 점수 ▲일일 유산소 부하 ▲신체 체력 지수 ▲청력 측정 기능이다. 이 가운데 생체 징후 기능은 사용자가 갤럭시 위치를 일주일 이상 착용한 채 수면하면 심박

수와 심박변이도, 호흡률, 피부 온도, 혈중 산소 포화도 등 5개 지표를 추적해 기준값 대비 변화가 감지될 때 알림을 준다.

건강관리 영역은 스마트폰·위치를 넘어 가전과 반려동물로도 넓어졌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의 'AI 푸드 매니저'가 식재료를 관리하며 레시피와 구매 품목을 제안하고, 반려동물 솔루션 '라이펫'은 사진 한 장으로 치아 질환과 슬개골 탈구, 백내장 같은 질환을 판별한다. 의료 현장과의 연결도 강화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수한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켈스(Xealth)는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해 디지털 건강관리 솔루션을 처방하도록 돕는 플랫폼으로, 삼성전자는 이를 갤럭시 기기와 연동해 병원 밖에서도 환자 관리가 이어지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구영민 기자 koogja_lee@

대한전선, 1463억 국가 전력망 수주

동해안 전력 수도권 있는 핵심 사업

대한전선이 국가 전력망 사업 수주를 통해 HVDC 사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술 개발부터 생산·시공 역량까지 내재화한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외 초고압 송전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대한전선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동서울 건설공사(EP2단계) 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1463억원이다.

이번 사업에서 대한전선은 500kV HVDC XLPE 케이블과 관련 부속 자재의 제조·공급부터 시공까지 턴키(Turn-Key) 방식으로 수행한다.

동해안~동서울 HVDC 사업은 동해안 지역의 원자력·화력발전과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까지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국가 핵심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500kV급 HVDC 전력선 2개 공구와 70kV급 중성선 1개 공구로 구성되며 대한전선은 약 86km 규모의 500kV HVDC XLPE 케이블 시스템을 공급·설치할 예정이다.

대한전선은 국내 최초로 500kV HVDC 케이블 시스템을 개발·상용화하고 북미 시장 등에 공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500kV 전류형 HVDC와 525kV 전압형 HVDC 케이블 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하며 초고압직류송전 분야로 기술 경쟁력을 넓혔다.

이들 시스템은 모두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됐다.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중앙회, LG CNS와 中企 AI 전환

2년간 42억 투입해 교육·기술 등 지원

중기중앙회가 LG CNS와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는 LG CNS와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에서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 CNS는 중소기업의 AI 지원을 위해 2년간 총 4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교육 ▲기술 ▲유통·마케팅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우선 중소기업 경영진을 위한 AI 수업 및 컨설팅을 서울 강서구 LG CNS 마곡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AI 도입 기준부터 AI 활용법까지 다룰 예정이다.

기술 지원은 정부의 '대·중소 상생형 A

X 선도모델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중기중앙회가 선정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부터 AI 모델 개발·적용, 시스템 통합 전 과정에 LG CNS의 인력과 기술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제조실행시스템(MES)·통계적 공정 관리(SPC)와 제조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결합한 '메뉴팩처링 AX 스타터 패키지'를 구축한다.

LG CNS의 AI 마케팅 솔루션으로 2년간 중소기업 100개사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 입점도 뒷받침한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중소기업의 AI 전환은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교육부터 제조혁신, 마케팅 확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끄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카카오 노사, 29일 ‘로그오프 데이’ 앞두고 공식교섭 재개

노조 “지난해 영업이익 13~14% 성과급 배분... RSU는 별도 지급” 카카오 “RSU 분리 어려워” 이견



카카오 노조원들이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투쟁 피켓을 들고 있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 노사가 창사 이래 첫 공동파업 이후 중단됐던 공식 교섭을 이번 주 재개한다. 노조가 오는 29일 추가 집단행동인 ‘로그오프 데이’를 예고한 상황에서 양측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면서 갈등 국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1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이번 주 중 공식 교섭을 열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노조 측은 현재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노조가 모두 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10일 카카오 공동파업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교섭이다. 앞서 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이후에도 물밑 대화를 이어왔지만 공식 협상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교섭이 향후 노사 갈등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29일 추가 단체 행동을 예고한 만큼 이번 주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과급·RSU 입장차 여전**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과 보상 체계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연간 500만원 상당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장기 보

상인 만큼 성과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RSU 역시 전체 보상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별도 성과급으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일부 복지 제도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성과급 산정 방식을 놓고는 여전히 견해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최근까지도 회사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파업 직전인 지난 8일 교섭에서도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 **◆오는 29일 로그오프 데이 변수** 관심은 오는 29일 예정된 로그오프 데이에 쏠린다. 로그오프 데이는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한 뒤 업무 시스템에서 일제히 로그아웃하는 방식의 집단행동이다. 특히 카카오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전자 휴일인 ‘리커버리 데이’로 운영하

고 있다. 이달 리커버리 데이가 26일인 만큼 주말과 29일 로그오프 데이를 연결하면 사실상 나흘간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노조는 총파업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최근 파업 집회에서 “투쟁 계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섭 의지를 강조했다. 카카오 역시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서비스 운영 자동화 수준이 높아 파업이 실제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 교섭으로 성과급과 RSU를 둘러싼 입장차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29일 로그오프 데이 규모와 향후 노사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공동파업까지 경험한 카카오 노사가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빛나 기자



svtna@metroseoul.co.kr metro

LG헬로비전, 렌탈·기업거래로 방송사업 부진 방어

렌탈·단말기 상품매출 지속 확대 방송·광고는 25.1% → 22%대로 교육청 단말기 보급, 렌탈 다변화



LG헬로렌탈. /공식 홈페이지 캡처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케이블TV 사업자들은 IPTV 산업보다 일찍 성장세가 꺾였다. 2008년 방송 시장에 진입한 IPTV가 영향을 미쳤다. IPTV 사업자들은 이동통신과 인터넷, 전화를 묶어 결합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영입

시장 주도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태광그룹 계열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했고, KT 계열 KT스카이라이프는 이듬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HCN을 인수했다. LG유플러스도 LG헬로비전을 자회사로 편입했지만, 유선방송 사업은 별도 법인인 LG헬로비전이 맡고 있다. 알뜰폰 사업 역시 모회사인 LG유플러스의 지배력이 강해 독자 성장에 한계가 있다. LG헬로비전의 헬로모바일과 LG유플러스 계열 미디어로그가 같은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LG헬로비전이 자체적인 투자와 사업 전략으로 외형을 키우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미디어로그의 시장 점유율은 약 18.0%인 반면, LG헬로비전의 헬로모바일은 4.0%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LG헬로비전은 렌탈과 단말

기 공급 등 상품 매출을 키워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 LG헬로비전은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에 디지털 교과서용 스마트 단말기 ‘다벗’ 보급했다. 계약 규모만 약 7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즉각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교육청 사업 수주로 태블릿 PC 등 상품 매출이 늘었지만, 상품 매출 원가 역시 2023년 1415억원에서 지난해 2466억원으로 급증했다. 매출이 늘어도 남는 이익은 제한적인 셈이다. 기존 렌탈 사업은 취급 가전 품목을 다양화해 차별화하고 있다. 대여료를 장기 간에 걸친 분할 납부로 돌려 고객 부담을 줄이고, MZ세대와 1인 가구에게 주목받는 로봇청소기, 친환경 위생 가전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했다. 이처럼 LG헬로비전이 사업 다변화를 통한 수익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본업인 방송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 투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숙제다. /조민선 기자 msjo@

SKT, 민관협력 소상공인 상권 분석 데이터 지원

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카드 협력 유동인구, 여·수신, 가맹점 매출 분석



(왼쪽부터)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명국 SKT 인더스트리얼 AI 담당, 박형주 KB국민은행 AI·DT 추진본부 본부장, 이상열 KB국민카드 시데이터사업그룹 전무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 하고있다. /SK텔레콤
이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 상권활성화지수 및 점포 이력 등을 융합해 지역별 상권 변화와 자금 수요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소재 특정 상권의 발달 현황을 분석·진단한 사례도 소개됐다. 신촌·연세로 상권을 분석한 결과 일

‘광고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신설 검색·디스플레이 분야 우선 도입
네이버가 공식 광고파트너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사 소속 담당자의 광고 상품 운용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광고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테스트인 네이버 애즈 엑스퍼트’를 통해 광고 담당자의 네이버 광고 상품 이해도와 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합격자에게 네이버가 공식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네이버는 공식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웨비나 등을 제공하며 광고 상품 운용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최근 광고 상품이 AI 기반으로 고도화

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운영 능력이 필요해진 점이 인증제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네이버 공식 파트너사 소속 광고 담당자는 광고주센터를 통해 인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6월에는 검색광고와 디스플레이광고 분야 테스트를 우선 도입하며, 하반기에는 AI 기반 광고 솔루션 ‘애드부스트’ 관련 과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시험은 과목별 40문항으로 구성되며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온라인 인증서가 발급되며 자격은 1년간 유지된다. 네이버는 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기념해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조기 합격자와 고득점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하며, 우수 참여 파트너사에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SK텔레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관 데이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와 협력해 정책·금융·상권 분석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 데이터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4개 기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 교류 및 공동 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유동인구 데이터를 제공한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의 여·수신 데이터와 KB국민카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조민선 기자

최운열 회장 연임... AI 감사체계 구축·회계개혁 완성 추진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지속가능성 공시·인증 분야 육성
회계사 직역 경쟁력 강화도 초점
저가수입 경쟁엔 “가격보다 품질”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향후 2년간 회계개혁 완성과 인공지능(AI) 기반 감사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근 회계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저가수입 경쟁과 감사품질 저하 우려에 대응하는 한편, 지속가능성 공시 확대와 AI 혁신 등 급변하는 환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최운열 현 회장이 제48대 회장으로 연임했다. 문병무 선출부회장과 박근서 감사도 함께 연임했으며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계기본법과



17일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2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운열 현 회장은 제48대 회장으로 연임했다. /허정윤 기자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등 3대 핵심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여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인회계사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진 기자회견답지 자리에서는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며 “지난 2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회와 회계업계가 직면한 과제들을 더욱 속

도감 있게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운열 2기는 회계제도 선진화와 함께 회계사의 직역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의 세무전문성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세무지원 조직과 교육체계를 회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 청년·지방 회계사의 안정적인 정착

을 지원하기 위한 개업지원센터 설치와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요건 완화, 개업환경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회계사 수급과 직결된 적정 선반인원과 실무수습기관 미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AI와 지속가능성 공시 분야는 최운열 2기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됐다.

최 회장은 “AI 감사환경에 필요한 제반 기준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AI 기술 발전으로 창출되는 신규 업무영역을 적극 발굴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장 동력인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 분야 역시 꾸준한 연구와 선제적 제도 정비를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회계업계 현안으로 떠오른 저가수입 경쟁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일각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저가수입 경쟁으로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를 우리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경쟁하고 수입회사

수가 아닌 전문성으로 평가받으며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신뢰를 선택하는 수임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개혁의 목표는 회계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있으며 그 성과는 오직 감사품질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 회장은 지역공인회계사회와 지역투명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영리·공공부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공헌과 재능기부 활동을 확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회계사대회(WCOA)도 최운열 2기의 주요 과제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회계산업의 역량과 회계개혁 성과를 국제 무대에 알리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회계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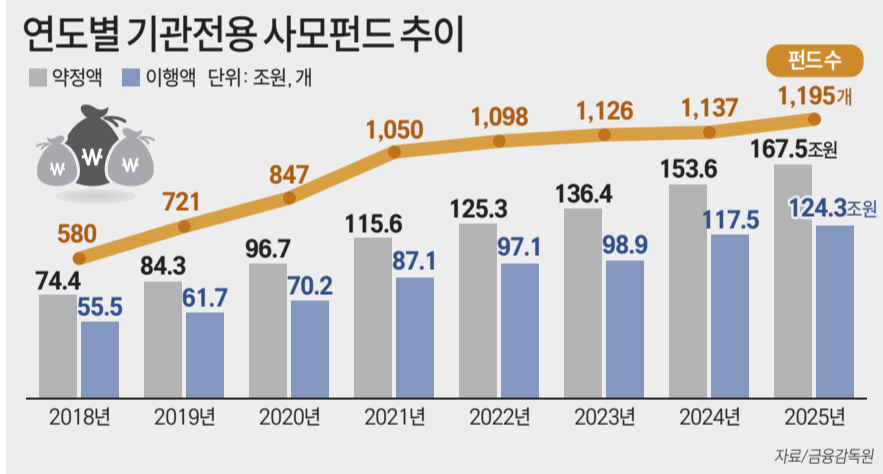
PEF 시장 약정액 167조 돌파... 비경영참여형 투자 급증

금감원, 신규 약정액 27.8조
비경영참여 투자 1년 새 4배 ↑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시장이 지난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약정액 167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M&A 시장 둔화 영향으로 전통적인 경영참여형 투자는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과 메자닌 등 비경영참여형 투자가 급증하면서 사모펀드 투자 전략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PEF는 1195개로 전년 대비 58개(5.1%) 늘었다. 출자약정액은 167조5000억원으로 13조9000억원(9.0%) 증가했고, 실제 투자에 투입된 이행액도 124조3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5.8%) 늘었다.

특히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새로 설정된 PEF는 211개로 전년보다 22.0% 증가했고, 신규 출자약정액은 27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대형 펀드 신설이 크게 늘면서 3000억원 이상 대형 PEF의 신규 약정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1% 증가했다.



반면 투자 행태는 달라졌다. 지난해 전체 투자집행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0% 증가했지만,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투자는 23조7000억원으로 전년(24조1000억원) 대비 0.4조원 감소했다. 투자기업 수도 431개에서 343개로 줄었다.

대신 비경영참여형 투자가 급성장했다. 지난해 비경영참여형 PEF 투자집행액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1조원 대비 340% 증가했다. 투자집행에 나선 펀드수 역시 26개에서 90개로 세 배 이상 늘었다.

투자 대상도 변화했다. 비경영참여형 투자 가운데 기업대출이 1조4000억원(3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메자닌 투자가 1조2000억원(27.6%)으로 뒤를 이었다. 두 투자 유형이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한 셈이다. 금감원은 M&A 시장 성장세 둔화로 전통적인 지분 투자 대신 대출과 메자닌 구조를 활용한 중위험·중수익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했다.

시장 자금은 대형 운용사로 집중되는 현상도 심화됐다. 약정액 기준 대형 GP

(업무집행사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68.7%로 전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중형 GP 비중은 27.0%로 낮아졌다. 대형 GP 운용 비중은 2022년 60.4%에서 지난해 68.7%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투자 대기 자금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즉시 투자 가능한 자금을 의미하는 드라이파우더(미집행 약정액)는 지난해 말 4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7% 증가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신중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투자 여력은 충분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회수 시장도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투자회수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이 가운데 M&A와 IPO 등을 통한 최종 회수가 13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펀드 수와 약정액, 투자 여력이 모두 증가하며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M&A 시장 둔화 영향으로 기업대출·메자닌 등 비경영참여형 투자가 확대되는 등 투자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AI 탑재한 올인원 금융앱 ‘신한 슈퍼S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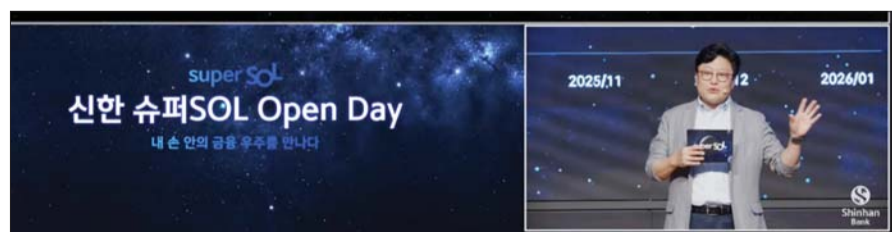
하이브리드 계좌·AI 에이전트로 차별화

신한금융그룹은 17일 새로운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을 처음 공개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은행·증권·카드·라이프 고객과 그룹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애플리케이션(앱) 공개 행사를 했다.

‘신한 슈퍼SOL’은 은행·증권·카드·보험 전 기능을 통합해 경계를 허문 올인원 금융 플랫폼이다. 동시에 은행 입출금과 주식 투자를 하나의 계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계좌 ‘SOL 링크’도 선보

였다. 그동안 각 그룹사 주요 기능 외에 상세 업무를 실행하려면 개별 앱을 별도로 실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업무를 하나의 앱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도 도입했다. 고객이 앱에서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금융상품 추천부터 가입, 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화로 끝낼 수 있는 업무가 50여가지에 달한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 어때?’라고 물으면 증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료가 빠지는 계좌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은행과 보험 업무를 차례



양진근 신한투자증권 본부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진행된 ‘신한 슈퍼SOL Open Day’ 행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로 안내한다. 신한금융은 이날 은행 입출금과 주식 투자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계좌인 ‘신한 SOL LINK’도 함께 선보였다. 증권 계좌 개설이나 자금 이체 없이 은행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곧바로 주식 매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식 매매

수수료도 국내 주식 0.01%, 해외 주식 0.07% 등으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이날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은행·카드·증권·보험을 하나의 앱으로 구현한 올인원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콤-GTN 차세대 글로벌 주문 인프라 구축 협약

코스콤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본사 비전룸에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전문기업 GTN(Global Trading Network)과 ‘글로벌 주문 허브(Global Order Hub)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 주문 허브 구축 사업은 국내 금융기관과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차세대 주문 전달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증권사들은 기존 해외 주문 연결망 외에도 추가적인 주문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돼 해외 시장 연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콤은 자본시장 IT 인프라 구축·운영 경험과 금융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GTN은 세계은행그룹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와 SBI홀딩스 등이 투자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기업으로, 다양한 국가와 시장을 연결하는 금융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주문 처리 환경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주문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중라 CEO는 “코스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연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양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주문 허브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코스콤과 GTN은 이번 협력을 단순한 주문 연결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투자 정보와 데이터 서비스를 연계한 금융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신하은 기자

“밀가루 담합 신고했으면 671억?” 공정위 신고포상금 30억 한도 폐지

공정위 ‘포상금고시’ 개정안 시행 과정금의 10%, 단일 요율로 일원화 최종 법률관계 확정 시 지급 원칙 내부 은밀행위 증거 인정범위 확대

앞으로 기업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액수 제한 없이 확정된 과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0억원이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되면서, 수백억원대 ‘포상금 짝퐁’을 터뜨리는 내부 고발자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없애고 과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든 기존 누진 방식을 ‘과정금의 10%’ 단일 요율로 일원화한 점이다. 대규모 사건을 신고할수록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보장해 내부 고발을 전폭 유

도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지급된 역대 최고 포상금은 지난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으로 지급된 17억 50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 단위 과정금이 부과되는 대형 사건의 경우 포상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쏠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최종 확정 과정금 총 6710억원)을 내부 고발자가 ‘최상’ 수준의 증거로 신고했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최대한도인 30억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10%인 67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포상금 규모가 대폭 커진 만큼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송 등으로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수백만 원 선의 ‘기본포상금’을 먼저 준 뒤 불복절차가 끝나면 나머지 ‘잔여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확대와 더불어 적발이 어려운 내부 은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

의 경우,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 증거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까지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거래 조건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는 경우 내부 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도급 거래에서 빈번한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력하는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에 대한 포상금 상향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수준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K-푸드 박람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K-푸드, 기존 먹거리 넘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로 도약

농식품부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 K-이니셔티브로의 진화 추진 전략 관광·외교·콘텐츠 등 연계 계획

K-푸드의 추가 확산방안 논의를 위해 정부부처(6곳)와 유관기관, 대기업 관계자 등이 한데 모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은 17일 각각의 추진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그간의 식품 중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K-푸드가 해외 곳곳에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게 유도하는 ‘위상 강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서 ‘제2차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기존의 먹거리를 넘어 이른바 ‘K-이니셔티브’(한국의 주도적 역할·추세의 선도)로의 진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도출했다. K-푸드의 가치의 세계 무대 확산을 위해, 콘텐츠·미식 관광·식문화외교·메가이벤트 등과 연계한다. 이를 통한 주도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우선 ‘미식 관광형’이 제시됐다.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K-치킨벨트, 찾아가는 양조장 등 K-미식벨트 관련 정보를 문체부의 한국관광홍보플랫폼(VISIT KOREA) 등에 게재하는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K-미식벨트를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테마별 관광지도와 제품 판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식문화 외교형’으로, 국제회의나

주한외교단 행사 시 ‘K-푸드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권역별 역사·식문화배경 등을 고려해 한국·정교·전통주 등의 프리미엄 K-푸드를 나전칠기, 백자 등 고급 전통공예에 담아 제공한다.

‘콘텐츠 융합형’ 방안도 나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K-푸드 챌린지, 글로벌 OTT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확대 등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참신하고 다양한 K-푸드 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해 전국대학(원)생(외국인유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 점검도 실시해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해외공관 K-푸드 수출업무 지원 매뉴얼’의 활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전략회의를 통해 거점공관 30개소의 수출지원 성과도 살핀다.

산업부는 인도·아프리카·중남미 등 잠재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공동물류센터 활용을 맡는다. 문체부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K-푸드가 음악·웹툰·영화 등의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협업의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비즈니스 교류의 장 확대를 마련한다.

또 중기부와 지체처는 각각 ‘K-푸드 스마트 제조 얼라이언스’ 추진, 한국제품 인증제에 대한 K-푸드 수출기업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중국 해외생산물 등록 규정 개정 등 해외식품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당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 청사에 EU 깃발이 걸려 있다. /AP·뉴스시

환경산업기술원 국제 탄소규제 대응 국내기업 전략 모색

법적·경제적 위험요인 진단하고 실질적 위험 관리체계 구축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7일 국제 탄소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제품의 전과정 탄소배출량 제한 및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규격 미달이나 의무 미이행 시 법적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규제 변화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경제적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주요국 제품 탄소규제의 요구 사항을 공유했다. 또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기업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 등 구체적인 위험 요소도 소개했다.

유창우 LG CNS 총괄은 산업계의 대응 동향을 전했다. 제품 탄소규제에 따른 기업 현장의 주요 위험 관리 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 대응 사례를 통해 제품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미전략투자공사 초대사장에 박종원

(前 산업부 통상차관보)

한미전략투자기금 운용 지휘

초대형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박종원(56)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가 17일 임명됐다.

박 신임 사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정통 산업통상 관료다. 1997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자동차량공과장, 중견기업정책관, 통상차관보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과장 재임 시절에는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국산화 및 공급망 다변화 대응을 주도한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지원비서관실 행정관, 주영한국대사관 상무차



관을 거쳤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했다.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집행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공사는 작년 11월 한미 양국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전략적 투자의 재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맡는다. 투자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이날 시행된다.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20년간 운영된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연차별 분할 납입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전국 4개 권역서 ‘재난대응 연수’

AI 활용 미래 재난대응체계 등 공유

해양수산부가 이달 25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해양수산 재난대응 역량 강화 합동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매년 지방정부, 소속기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등 주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 및 기관 간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올해 연수회는 18일 부산을 시작으로, 22일 서울, 23일 강릉, 25일 광주에서 열린다. 지방해양수산청, 광역·기초단체, 지방정부, 항만공사,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 총 70여 개 기관에서 250여 명의 재난

업무 담당자가 참여한다.

연수회에서는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위기관리 매뉴얼 ▲선박사고·해양오염·해파리 출현 등 주요 재난 사례와 대응요령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제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의 재난대응체계 등 새로운 재난관리 동향 공유와 함께 재난안전 인문학 등 교양 강의 프로그램이 편성됐다.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재난은 초기 대응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해양수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GTX-C, ‘기존 변전소 활용’ 모의실험 합의

청량리변전소 설치에 입주민과 갈등 권익위, 내달까지 모의실험 완료 조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공급용 변전소 설치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민들과 정부·시행사 간에 벌어지던 첨예한 갈등이 극적인 돌파구를 찾았다. 아파트에서 불과 18m 거리에 변전소를 새로 짓는 대신, 기존 변전소를 활용해 철도를 운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 아파트 입주민 3500여 명이 제기한 청량리변전소 설치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현장조사 및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갈등은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 노선용 청량리변전소가 단지에서 불과 18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 환경 피해는 물론, 굴착에 따른 건물 손상 가능성과 준공 후 전차로 인한 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변전소 설치를 반대해 왔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사인 지티엑스씨는 해당 변전소가 철도 정상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이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어 부지 이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갈등이 심해지자 입주민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지티엑스씨, 동대문구는 새로 변전소를 짓지 않고 기존 변전소를 활용하더라도 GTX-C 노선의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모의실험을 올해 7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기술의 수준이며,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친환경포장재



■ 친환경 CNK 도로포장재의 4대 우수성

☑ 도로포장재에 혁신적인 **친환경성**을 도입합니다!

- **친환경재료** | 6대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불용출
- **친환경 공법** | 소형장비 · 현장생산 · 간단시공을 통하여 탄소배출 저감

☑ 도로포장재에 적합한 **고강도재료**를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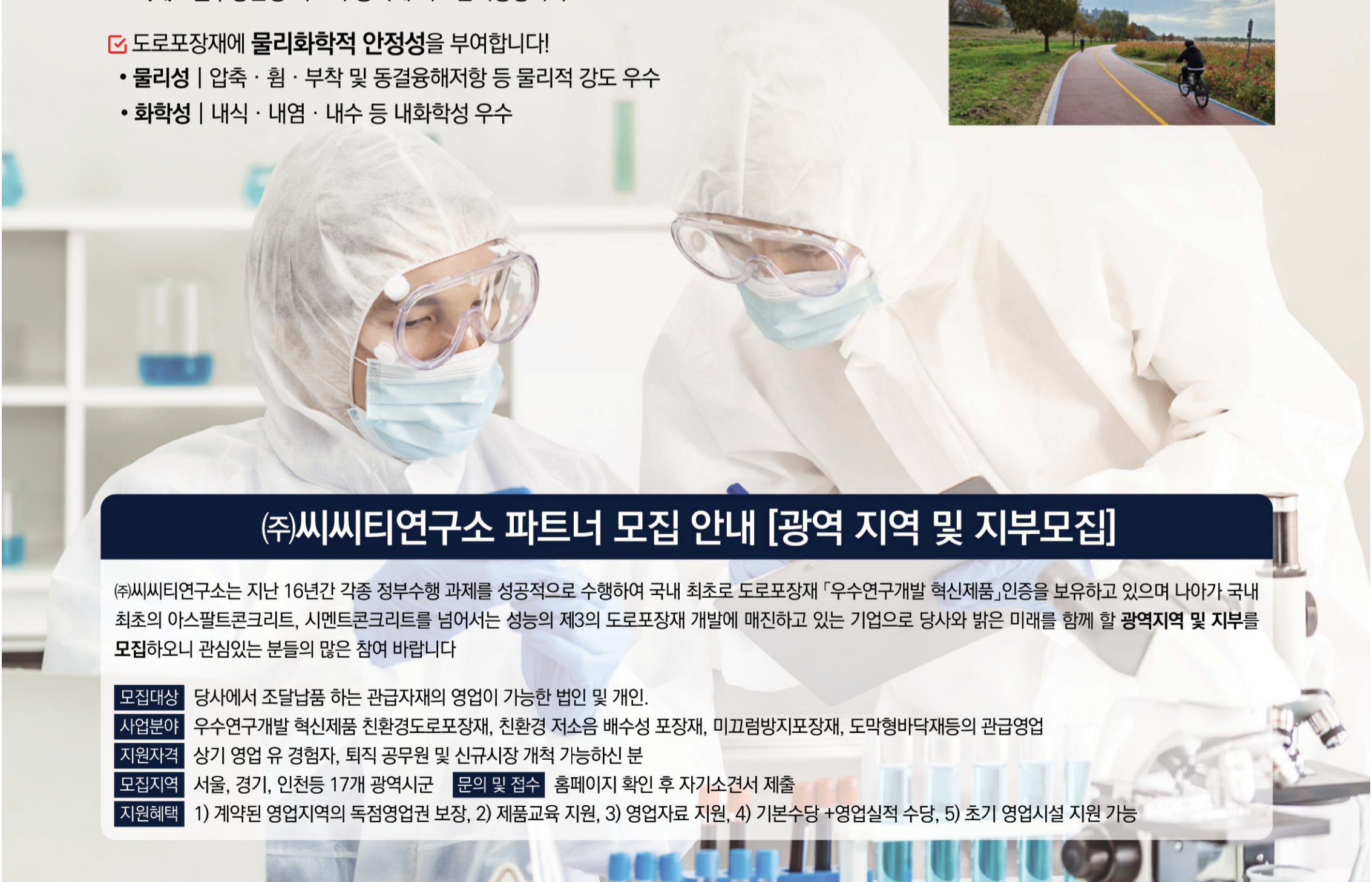
- **골재(FNS) 특성** | 물리화학적으로 안정된 고강도
- **하이브리드 바인더** | 아크릴과 우레탄의 하이브리드 유기결합제로 두 장점을 모두 보유

☑ 도로포장재에 복합적인 **기능성**을 접목합니다!

- **공극률** | 배수성 및 소음저감 성능 우수
- **미세요철** | 평탄성 확보와 동시에 미끄럼저항성 우수

☑ 도로포장재에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 **물리성** | 압축 · 휨 · 부착 및 동결융해저항 등 물리적 강도 우수
- **화학적** | 내식 · 내염 · 내수 등 내화학적성 우수



(주)씨씨티연구소 파트너 모집 안내 [광역 지역 및 지부모집]

(주)씨씨티연구소는 지난 16년간 각종 정부수행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내 최초로 도로포장재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내 최초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콘크리트를 넘어서는 성능의 제3의 도로포장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으로 당사와 밝은 미래를 함께 할 **광역지역 및 지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대상** 당사에서 조달납품 하는 관급자재의 영업이 가능한 법인 및 개인.
- 사업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친환경도로포장재, 친환경 저소음 배수성 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등의 관급영업
- 지원자격** 상기 영업 유 경험자, 퇴직 공무원 및 신규시장 개척 가능하신 분
- 모집지역** 서울, 경기, 인천등 17개 광역시군 **문의 및 접수** 홈페이지 확인 후 자기소개서 제출
- 지원혜택** 1) 계약된 영업지역의 독점영업권 보장, 2) 제품교육 지원, 3) 영업자료 지원, 4) 기본수당 +영업실적 수당, 5) 초기 영업시설 지원 가능



(주)씨씨티연구소

Chemical Concrete Technical Research Center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가은공단길 17

대표번호 054-535-2704

홈페이지 www.cct.or.kr

E-mail cct5352704@hanmail.net

전국 첫 로봇리퍼브센터 효과... 김해시, 실증사업 5건 선정

경상남도 내 '최다 실적' 기록
공정모델 2건, 재제조지원 3건
로봇 재제조 산업, 성장동력 육성

김해시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 '2026년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에서 경남도 전체 선정 과제 11건 가운데 5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내 단일 지자체 최다다. 공정모델형 2건, 재제조지원형 3건으로, 특히 올해 신설된 재제조지원형은 배정 3건 전량이 김해시 과제였다.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은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를 도입해 생산성과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올해 총 예산은 약 96억원, 수행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사업 유형은 ▲공정모델형 ▲수출지원형 ▲재제조지원형 3가지다.

재제조지원형은 사용 이력이 있는 산업용 로봇을 분해·점검·부품 교체해 신



김해시청.

품 수준으로 복원한 뒤 제조 현장에 투입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시범 사업이다. 재제조 로봇은 신품 대비 도입 비용이 낮아 중소기업의 자동화 문턱을 낮추고, 자원 순환 측면에서도 주목 받는다.

김해시의 독점적 성과 배경에는 인프

라가 있다. 재제조지원형 총괄주관기관인 한국로봇사용자협회가 김해 진례면 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한국로봇리퍼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2022년 산업부 공모로 선정돼 총사업비 221억원 규모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공

공 로봇리퍼브센터로 준공됐다. 지상 3층·연면적 2033㎡에 공용장비실·홍보관·기업 입주공간을 갖추고 로봇 성능 평가부터 안전 검증, 기술 지원까지 제조 전 과정을 수행한다.

실증사업에는 세계산업·동원테크·KSM 등 지역 제조 기업 3곳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자동차 부품 비전 검사, 사출품 공정 자동화, 차체 용접 최적화 과제를 맡는다. 로봇 시스템 구축은 모토텍·로블루션 등 지역로봇SI·재제조전문 기업이 담당해 로봇 도입부터 재제조·유지 관리까지 지역 내 순환 구조를 갖추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로봇 재제조 기반과 지역 기업 간 협력 체계가 결실을 맺었다"며 "물류 로봇과 산업용 로봇 재제조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자원 순환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통학로 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창원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CCTV 시스템인 '통학로 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 10개소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 10개소를 추가해 총 20개소로 늘린 것이다.

통학로 안전지킴이는 학교 주변 CCTV에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이다.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가 차도로 진입하거나 보호구역 내 차량이 불법 주·정차하면 AI가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안내 방송은 평일 오전 8시~10시, 오후 1시~6시에 집중 운영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영양군

지역 농어민수당 24억 지급

영양군은 17일부터 2026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모두 3989농가다. 지급액은 농업경영주 1인당 6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23억9340만원이다. 수당은 영양사랑상품권 지류로 일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기장군

일광교육행복타운 20일 개관

기장군이 오는 20일 '일광교육행복타운' 개관에 맞춰 과학과 언어를 주제로 한 가족 체험 행사를 동시 개최한다.

일광교육행복타운은 기장군 일광읍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교육·문화 복합시설이다. 생활문화센터, 다목적강당, 거점영어센터, 육아지원시설, 돌봄센터, 도서관 등이 입주해 있으며 이달 4일부터 일부 시설이 선제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기장군은 개관식 당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장가족과학체험학습'과 '기장가족영어체험학습' 2개 프로그램을 연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국립부경대-KIOST

'해양수도권' 발전 학연 협력

국립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16일 국립부경대 대학본부에서 '해양수도권 발전 및 해양수산 학연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경대의 해양수산 특화 교육 역량과 KIOST의 연구 인프라를 결합해 국가 해양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해양환경·기후 변화 등 미래 해양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 ▲연구 시설과 장비 공동 활용 ▲해양과학기술 특화 미래 인재와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연구 정보와 인프라 교류 ▲학술 행사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해양산업 발전과 기술사업화 지원 등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 수소배관 시험평가 기반 구축

수출형 강관 신뢰성 평가사업 선정
2030년까지 197억8500만원 투입

포항시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포항시는 경북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수출주도형 강관 신뢰성 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97억8500만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최근 강관 업계는 미국과 유럽의 관세 장벽, 캐나다의 할당제,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고부가가치 수소배관의 국산화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해 지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 선정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강관기술센터 부지에 990㎡ 규모의 방폭고압수소 시험평가동이 새로 들어선다. 이곳에는 고압수소 환경용 파괴인성 평가시스템 등 고압수소 및 CCS 전용 시험평가 장비 10종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시는 기존 배관시험평가 장비 13종과 연계해 고압수소와 이산화탄소 운송 환경에서 발생하는 수소취성과 내식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배관 신뢰성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획득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 필요한 수소이송·재순환 배관의 국산화와 글로벌 표준화 대응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142명 창출, 생산유발효과 47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84억원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남도, 동물보호센터 18곳 안전점검

농식품부·시·군과 합동 진행

경남도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 호우에 대비해 오는 26일까지 도내 동물보호센터 1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가 전국 단위로 추진하는 여름철 동물보호센터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하나로,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연사바율이 높은 일부 센터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경남도 점검 대상은 직영 12개소, 위탁 6개소다. 올해 1월 함양군 동물보호센터가 신축 개소하면서 직영 센터가 12개소로 늘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냉방·환기 설비 운영 상태 ▲차광 시설



동물보호센터 강아지들. /경남도

설치 여부 ▲보호 동물 건강 상태 ▲침수·붕괴 등 시설 안전관리 상황 등이다. 실내 보호 공간의 적정 온도 유지 여부도 점검 확인 대상이다.

보호소 내 동물은 스스로 더위를 피하거나 물을 찾는 데 한계가 있어 냉방·급수 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하고 후속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경주 광명~화천 도로 30일 전면 개통

KTX역세권 접근성 향상

경주시는 KTX 경주역세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지방도 904호선 광명~화천간 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오는 30일 전 구간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명동 광명삼거리에서 KTX 경주역세권을 잇는 1.6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경북도가 시행하고 총사업비 211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4월 광명삼거리~제1화천교 구간 0.7km를 먼저 개통한 데 이어 이달 말 제1화천교~반도유보리아파트 구간 0.9km가 추가 개통되면 전 구간 연결이 완료된다.

광명~화천 도로는 광명삼거리와 KTX 경주역세권, 공동주택단지 등을 잇는 주요 교통축이다. 시는 도로 개통으로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등 인근 산업·연구



오는 30일 전 구간 개통을 앞둔 광명~화천 도로와 KTX 경주역세권 일대 모습.

시설 접근성이 개선되고 물류 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차로 확충과 선형 개선에 따라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사고 위험 감소 효과도 예상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광명~화천 도로 확장사업 준공으로 KTX 경주역세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강화됐다"며 "교통 편의 증진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도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부산 국제해양영화제 역대최대 규모 개최

오늘 개막... 15개국 47편 영화

부산시는 '제9회 국제해양영화제'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시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해양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올해 영화제는 '바다앞에, 우리는(Standing Before the Sea)'을 주제로 15개국 47편의 장·단편 해양 영화를 상영한다. 지난해 10개국 33편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참여국과 상영 편수 모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개막작은 남극 해양 생태계와 기후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2편이다. 캐서린 프랜시스·캠벨 블루어 감독의 '남극을 위한 연대(All Eyes on Antarctica)'와 호아킨 아줄레·홀리안 아줄레 감독의 '도메인 원(Antarctica-Domain one)'이 선정됐다.

21일 폐막작은 심해 황혼대를 탐사하는 해양생물학자의 여정을 담은 타샤 반 잔트·세바스티안 제르 감독의 '아름속에 빛이 있었다(A life Illuminated)'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인공지능(AI) 해양 영화 섹션도 눈에 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편과 초청작 8편 등 11편의 AI 제작 해양영화를 별도로 선보인다.

이 밖에도 바다 수영 애호가들이 관련 영화 4편을 함께 관람하는 커뮤니티형 프로그램 '수천자 클럽', 로컬 브랜드 마켓 '바다 마르세', 관객과의 대화(GV) 등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나윤빈 시 관광마이스국장장은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 더 많은 이가 바다의 매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새단장 통했다’... 백화점 3사, 점포 효율화로 실적 반등

인기 브랜드 앞세워 방문객 확대 구조조정 효과로 수익성 개선

신세계백, 대구점 패션관 리뉴얼 롯데백, 인천점 1조 점포 도전 현대백, 목동 리빙관 차별화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대대적인 점포 리뉴얼과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해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뚜렷한 실적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수도권 주요 점포에서 검증된 프리미엄 콘텐츠를 지역 핵심 점포로 이식하는 동시에, 저효율 자산을 정리하는 핀셋 개편으로 내실 다지기에 돌입했다.

1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요 백화점들은 핵심 점포 리뉴얼을 통한 집객력 강화와 수익성이 낮은 점포 정리를 병행하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전략은 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산업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2026년 백화점 3사의 연결 영업이익 예상 증가율(컨센서스



신세계백화점 대구신세계 6층 여성패션 전문관 리뉴얼 오픈 당일 모습. 백화점 업계가 점포 리뉴얼을 이어가며 수익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세계

기준 39%) 가운데 약 10%p는 이러한 사업구조조정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세계백화점은 대구신세계 6층 여성패션 전문관을 리뉴얼 오픈하며 대구·경북 지역 공략에 나섰다. 이번 리뉴얼은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등에서 고객 반응이 검증된 신규 브랜드를 대거 유치한 것이 특징이다. 랙토, 시에, 틸아이디어, 아틀리에나인 등 인기 뉴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대구 상권 최초로 정식 입점했으며, 포유어아이즈오리, 부디무드라, LE917 등

팝업 화제 브랜드와 국내외 디자이너 브랜드 총 60여 개가 새롭게 진을 걸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차별화된 패션 콘텐츠를 통해 지역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점포 리뉴얼의 성과는 입증됐다. 오픈 1주년을 맞은 강남점 ‘신세계마켓’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3년여에 걸친 프리미엄 리뉴얼을 모두 마무리하고 ‘수도권 서부 지역 첫 1조 원 백화점’으로도

약을 선언했다. 인천점은 미래형 식품관 ‘푸드 에비뉴’를 시작으로 프리미엄 뷰티관, 키즈관, 여성·럭셔리 패션관을 차례로 새단장했다. 특히 지난 2년간 공을 들인 1층 럭셔리관은 피아제, 불가리, 티파니 등 하이엔드 주얼리·워치 브랜드를 대거 보강하며 지역 럭셔리 랜드마크로 입지를 다졌다. 공격적인 리뉴얼 결과 인천점의 올 1분기 실적은 20%대 신장세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연매출 83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울러 롯데는 마산점, 분당점 등 저효

율 점포를 매년 스캐랩 고장비를 축소하는 등 효율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목동점 개점 이후 최대 규모의 리빙관 리뉴얼을 단행하며 맞춤형 프리미엄 큐레이션 공간을 선보였다. 총 500평 규모의 지하 1층 리빙관은 프리미엄 리빙 수요가 높은 목동 상권의 특성을 반영했다. 수면·이완 전문 유튜브 채널 및 향기 큐레이션 업체와 협업한 차별화된 수면 케어 공간 ‘슬립 피팅룸’을 신설하고, 프리츠한센 등 북유럽 감성의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를 대거 유치했다. 현대백화점은 점포 효율화를 위해 연간 400억 원의 적자를 내던 동대문점을 정리한 바 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오직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점적 콘텐츠와 몰입형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수도권 점포에서 흥행이 검증된 핵심 브랜드를 지방 거점 점포로 빠르게 이식하는 전략과 적자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는 체질 개선이 올해 백화점 전반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소바바’ 독립 브랜드로 키운다

CJ제일제당, 치킨시장 공략 강화 황금홀릭 매출 60억, 제품군 확대 팝업·구장 판매로 외식 수요 겨냥



소바바_ 브랜드 제품 라인업 & 캠페인 포스터.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냉동치킨 대표 제품이었던 ‘소바바 치킨’을 독립 브랜드 ‘소바바’로 출범시키며 치킨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간편식 시장을 넘어 외식·배달 수요까지 겨냥해 브랜드 경쟁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CJ제일제당은 17일 치킨 전문 브랜드 ‘소바바’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기존 소이 허니·양념허니·마소키·레드 핫 등 제품군에 이어 후라이드 치킨 신제품 ‘소바바 황금홀릭’을 추가하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지난 3월 출시한 ‘소바바 황금홀릭 후라이드 순살 치킨’은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매출 60억 원을 돌파했고, 판매량도 100만 봉 달성을 앞두고 있다. 이달에는 ‘소바바 황금홀릭 후라이드 뼈 있는 치킨’도 새롭게 선보였다.

브랜드 출범과 함께 마케팅도 강화했다. 가수 겸 배우 황민현을 모델로 기용해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공개 사할

만에 영상 조회수 1400만 회를 기록했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는 ‘황민현과 함께하는 소바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인천 문학구장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바바 세트’도 판매한다.

한편, ‘소바바 치킨’은 2023년 프리미엄 간편식 브랜드 ‘고메’ 산하 제품으로 출시됐다.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매출 2500억 원, 누적 판매량 2500만 봉을 기록하며 대표 냉동치킨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CJ제일제당 측은 “앞으로 다양한 치킨 제품을 추가해 ‘소바바’를 외식과 배달 시장까지 아우르는 대형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칠성, ‘웹시 엑스트라 피즈’로 여름 공략

당류·칼로리 30% 낮춰 차별화 캔·페트로 온오프라인 판매

롯데칠성음료가 기존 제품보다 탄산감을 한층 강화한 신제품 ‘웹시 엑스트라 피즈(EXTRA FIZZ)’를 출시하며 탄산음료 시장 공략에 나섰다. 더 오래 지속되는 청량감과 당·칼로리를 낮춘 점을 앞세워 여름 성수기 수요를 겨냥했다.

웹시 엑스트라 피즈는 독자적인 특수 공법을 적용해 탄산 기포를 미세하게 형성, 개봉부터 마지막 한 모금까지 짜릿한 탄산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웹시의 청량한 맛은 유지하면서 탄산감을 한층 높였다.

/신원선 기자

신제품은 기존 웹시 오리지널 대비 당류와 칼로리를 약 30% 줄여 부담을 낮췄다. 패키지에는 터져 오르는 탄산 거품 이미지를 적용하고 ‘EXTRA FIZZ’와 ‘당류&칼로리 30% DOWN’ 문구를 배치해 제품 특징을 강조했다.

제품은 355mL 캔과 500mL 페트병으로 출시되며 칠성물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강한 탄산감과 가벼운 칼로리를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했다”며 “올여름 차별화된 청량감을 제공하는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J온스타일, AI 플랫폼에 ‘클로드’ 도입

엔트로픽 기업용 AI 솔루션 적용 AI 쇼핑 이어 업무 전반 확대

CJ온스타일이 글로벌 AI 기업 엔트로픽의 기업용 생성형 AI 솔루션 ‘클로드 엔터프라이즈(Claude Enterprise)’를 전사 공식 AI 플랫폼으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지난해 사내 AI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AI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 경험과 업무 환경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CJ온스타일은 최근 선보인 AI 기반 쇼핑 서비스를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AI 활용 범위를 사내 업무 전반으로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사에 따르면 AI 관련 서비스를 통한 앱·웹 유입 고객 수는 올해 1월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는 AI 에이전트



지난해 말 열린 사내 AI 콘퍼런스 ‘AI CON(에이아이콘)’에서 성동훈 플랫폼본부장이 AI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J온스타일

구축과 업무 자동화 기능을 갖춘 기업용 생성형 AI 솔루션이다. 컨플루언스, 지라(Jira),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주요 업무 시스템과 연동해 활용할 수 있다.

CJ온스타일은 테크 조직뿐 아니라 상품기획(MD), 콘텐츠 제작(PD), 방송 운영·심의 등 비개발 조직으로도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오뚜기, ‘로열라면’ 흥행

한 달여 만에 200만개 판매

오뚜기가 열라면 출시 30주년을 맞아 선보인 신제품 ‘로열라면’이 출시 한 달여 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개를 돌파했다. 별도의 TV 광고 없이 소비자 입소문을 중심으로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며 흥행에 성공했다. 17일 오뚜기에 따르면 로열라면은 열라면의 매운맛에 치즈와 크림을 더한 K-로제 콘셉트의 볶음면이다. 체다치즈와 마스카포네 치즈를 사용해 풍미를 높였으며, 물을 버리지 않고 조리하는 ‘복작복작 조리법’으로 꾸덕한 식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열라면보다 매운맛 강도를 낮춰 매운맛 입문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K-로제 맛을 선호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신원선 기자

서울식품공업

구조조정 효과 본격화 수익성 개선 기대감

서울식품공업이 수년간 추진해 온 사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올해를 기점으로 수익성 중심의 경영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낸다. 저수익 거러쳐 정리와 가격 정상화 효과가 본격 반영되면서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식품공업은 올해 1분기 매출 15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4억8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줄었고, 당기순손실도 8억 원에서 4억8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회사는 저마진 거래처 단가 인상, 부실 거래처 정리 등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단행한 판매가격 인상 효과도 5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해 2분기부터 개선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원선 기자

오리온, 파업 문턱서 임금협상 합의

기본급 인상·수당 체계 개선 합의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 사태를 겪은 오리온 노사가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기본급 인상과 수당 체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예고됐던 전면 파업도 철회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 노사는 16일 오후 진행된 추가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수당 체계 개선안에 합의했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교섭은 하루 앞당겨 진행됐으며, 오후 7시에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노조는 합의안에 대

한 조합원 찬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전 직무 기본급 7.5% 인상과 기본급·수당 비율을 기존 6대4에서 7대3으로 조정하기로 한 기존 노사 합의 이행, 직무별 보상체계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회사는 당초 2% 수준이던 임금 인상안을 3.5%까지 높여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지난해 오리온이 연결 기준 매출 3조3324억 원, 영업이익 5582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었다. /신원선 기자

동물임상 없는 신약개발 시대... 'AI·장기칩' 대안 부상

EU·美,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추진
바이오솔루션, 동물대체시험법 확보
HLB바이오, AI 비임상 플랫폼 구축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관문인 비임상 단계에서 '동물'이 사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글로벌 규제 당국이 의약품 및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잇달아 공식 채택하면서, 국내 비임상 업계도 인공지능(AI)과 인간 생체조직모사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플랫폼으로 빠르게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1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달 1일 의약품을 포함한 15개 분야에서 동물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격 채택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2023년 기준, 유럽연합 내 규제 시험에 사용된 동물은 1500만 마리가 넘고 이 중 40%가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에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상황을 비동물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AI 및 데이터 기반 평가 활용, 국제 표준 개발 장려 등을 수행



바이오솔루션이 보유한 한이인체 표피 모델 '케라스킨'은 동물대체시험법에 활용 가능하다.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약 분야에서는 반복 투여 독성 시험(RDT)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가상 대조군을 활용해 동물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동물 대체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4월 'FDA 현대화법 2.0'에 따라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장기 칩,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체의 인간 기반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는 신약 개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항암제 개발 시 위험 기반 평가 접근법을 통해 동물실험 필요성을 줄이는 구체적 지침까지 제안하며 규제 문턱을 전방위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대체시험법이 글로벌 신약

개발과 수출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 되면서 국내 기업과 정부 기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바이오솔루션은 국내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국제 표준화 기구의 문턱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바이오솔루션이 개발한 인체 표피 모델 '케라스킨'을 활용한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은 최근 글로벌 규제 기관의 기준이 되는 OECD 시험가이드라인(TG 488)에 등재됐다. 케라스킨은 세포 간 결합 등 인체 표피와 동일한 구조를 갖춰 화장품, 의료가, 의약품 등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글로벌 규제 변화에 발맞춘 정부 기관과의 협력도 본궤도에 올랐다. 바이오솔루션은 지난 16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미 국제 표준화를 추진 중인 '피부부식성 대체시험법'에 이어, 바이오솔루션의 3D 인체 호흡기 모델을 활용한 '급성 흡입 독성 대체시험법'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당 모델은 인체 유래 기관지점막 상피세포를

기반으로 구현한 기도 유사 모델이다. 기존 동물실험에 2~3개월이 소요되던 평가 기간을 단 3일로 단축하면서도 정확도는 높이는 데 쓰인다.

국내 비임상위탁사업(CRO) 기업인 HLB바이오텍의 경우 국내 신약개발 기업과의 협력을 넓힌다. HLB바이오텍은 바스젠바이오와 함께 동물대체시험에 인공지능을 더한 통합 비임상 플랫폼을 구축한다. 양사는 약물 유효성과 독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인실리코)으로 사전 예측하고, 오가노이드나 장기칩으로 후속 검증하는 윈스톱 프로세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국내 신약개발 스타트업 관계자는 "동물대체시험법은 윤리적 차원에서도 가치가 있지만 비임상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도 주목받는다"며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이 가시화된 만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연구 설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이 차세대 글로벌 밸리데이션 시장을 선점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LG, AI기술로 난치성 질환 신약개발 나선다

디앤디파마텍과 공동 연구
AI가 신약 후보 찾고 검증까지

LG가 차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국내 바이오계와 협력하며 글로벌 'AI 바이오'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LG AI연구원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트윈타워에서 디앤디파마텍과 '차세대 펩타이드 신약 공동 개발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AI 기술력과 펩타이드 기반 신약개발 전문성을 결합한다. 특히 난치성 질환에서 알약 형태의 경구용 펩타이드 치료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설계로 약물 안전성, 흡수율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짧게 연결된 형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작은 단백질 조각이다. 체내 안전성이 높아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되고 있으나 위장 소화 효소에 분해되기 쉬워 주로 주사제로 처방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사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소재 LG트윈타워에서 임우형 LG AI연구원장(왼쪽)과 이슬기 디앤디파마텍 대표가 '차세대 펩타이드 신약 공동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본계약 체결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LG

LG가 설계한 신약 후보물질을 디앤디파마텍이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시 AI 모델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고도화한다.

LG AI연구원은 질병 원인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AI 모델을 개발한다. 최적의 펩타이드 서열을 규명할 계획이다. 디앤디파마텍은 AI가 도출한 후보물질의 구조 설계, 합성, 평가를 담당한다. 자체 기술을 적용해 경구 제형을 개발하고 전

임상, 임상, 글로벌 인허가 절차까지 전담한다.

실제로 LG AI연구원은 AI와 바이오를 융합해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혁신 기술을 지속 개발해 왔다.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AI 플랫폼 '암 에이전트 AI'를 개발하고 있으며 AI 기반 신물질 개발 플랫폼 '엑시원 디스커버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복지부 AI 신약 사업 선정

3년간 22억 규모 정부 지원

JW중외제약이 국산 혁신신약 개발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구조 기반 AI신약개발'을 지원하는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동연구개발 기관인 C&S신약연구소와 함께 향후 3년간 총 22

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아 항암 신약 후보물질 발굴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JW중외제약의 기존 AI 신약개발 통합 플랫폼 '제이웨이브'와 로봇 기반 합성자동화 시스템을 연계한 '자율 연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다.

제이웨이브는 500여 종의 세포주·오가노이드·질환 동물 모델에서 확보한 유전체 정보와 4만여 개의 자체 합성 화합물 데이터 등 생물 및 화학 분야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유효 물질을 탐색하고 선도 물질을 최적화하는 등 신약 후

보물질 탐색 과정 전주기에서 효율성을 높인다.

또 표적 단백질의 구조와 약물 결합 부위를 분석하고, 유효성, 선택성, 약물 특성 등을 고려한 화합물을 설계해 준다. 이후 해당 화합물을 합성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로봇이 자동으로 합성·생산한다.

JW중외제약은 이처럼 자체 구축해 온 AI 신약개발 전략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번 '구조 기반 AI신약개발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구조기반 약물발굴은 질환과 관련된 표적 단백질의 3차원 구조와 약물이 결합하는 부위를 분석해 유효물질을 탐색하고 최적화하는 연구 방식이다. /이청하 기자

삼천당제약, 경구용 인슐린 임상 1상 개시

'SCD0503' 첫 환자 투약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인슐린 후보물질 'SCD0503'의 글로벌 임상 1상에서 첫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지난 5월 28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CTA) 승인을 획득한 데 따른 것으로, 승인 이후 본격적인 환자 투약에 돌입하며 '먹는 인슐린' 상용화를 위한 실질적 검증 단계에 진입했다.

임상은 독일의 당뇨 및 대사질환 전문 임상시험기관인 Profil에서 수행되며,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용 인슐린 SCD0503과 기존 피하주사 인슐린을 비교 평가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시험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더블 블라인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4개 치료군, 6주간 교차설계로 진행된다. 정상혈당 클램프 조건에서 상대적 생체이용률, 약동학 및 약력학 특성을 평가하며,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정상혈당 클램프는 새로운 인슐린 제제의 약효를 평가할 때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표준 평가 방법으로,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도 인슐린의 시간-작용 특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포도당 주입속도(GIR)를 활용해 약물의 실제 혈당 강하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벤티지랩, BIO US서 빅파마와 협력 모색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 경쟁력 홍보

인벤티지랩이 오는 6월 22~25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BIO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BIO US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신규 사업 및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BIO US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협력과 사업개발 기회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파트너링 행사다.

인벤티지랩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BIO US에 단독 부스로 참가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약 40건의 파트너링 미팅이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도 과제 진행 및 전략적 협력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벤티지랩은 핵심 플랫폼인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IVL-DrugFluidic)과 항체·약물 피하주사(SC) 제형화 플랫폼 (IVL-BioFluidic™)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링 및 글로벌 협력 기회 발굴에 적극 나선다.

특히 마이크로플루이드스 기반 독보적인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은 시장 경쟁이 치열한 비만치료제 시장을 포함하여 파트너사들의 포트폴리오 강화에 차별점을 제시할 수 있어, 다양한 협력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벤티지랩이 최근 공개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항체·약물제의 초고농축 입자화 플랫폼은 고용량 투여가 필요한 항체·약물제의 SC 전환을 목표로 하는 다수의 글로벌 빅파마들과 공동 개발 평가 계약을 포함한 즉시적인 협력 가능성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e-Topia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kec.kea.kr

SETIC 2026

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2026. 6. 24(수) - 26(금)

호텔 농심 (부산시 동래구)

멈추지 않는 **기술**,
확장되는 에너지의 **물결**





이금융그룹,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 후원

이금융그룹 이사회공헌재단은 공익법인의 우수 활동을 발굴·확산하고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 및 소통과 나눔 컨퍼런스'를 후원했다고 17일 밝혔다. 황병우 이금융그룹 회장(오른쪽)과 황영기 한국자산재단협의회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금융



GS건설,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 추진

GS건설은 지난 16일 경기 용인시 안전혁신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만수 GS건설 부사장(오른쪽)과 최중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 유럽 투어 세미나' 성료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7~13일 '오스템 유럽 투어 세미나 2026'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임플란트 개발과 생산, 제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견학하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 치과 진료 솔루션을 체험했다. 또 최신 임상 트렌드를 반영한 학술 강연에 참여하고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도 가졌다. /오스템임플란트



LX하우시스, 사회공헌 민관협력사업 참여

LX하우시스는 사회공헌 민관협력사업인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과 '녹색유아공간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해 바닥재와 벽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LX하우시스 장식소재사업부장 황민영 상무(오른쪽 첫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X하우시스



세븐일레븐, '점포 청결 메이크업' 캠페인

세븐일레븐은 가맹 경영주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점포 청결 메이크업(MAKE-UP)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점포 청결 수준을 높여 고객에게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점포 운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븐일레븐

기아 PV5 패신저, 英 오토카 '최고의 대형차' 선정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 인정받아 "세련된 주행감에 뛰어난 가성비"

기아의 목적기반차량(PBV) PV5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가치를 인정 받았다.

기아는 PV5 패신저가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가 주관하는 '2026 오토카 어워드'에서 최고의 대형차 부문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오토카는 PV5 패신저 수상 이유에 대해 신선하고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링, 예상을 뛰어넘는 세련된 주행감, 효율성이 돋보이는 실내 레이아웃에 주목하며 E-GMP.S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보한 동력성과 주행거리,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전동화 다목적 차량(MPV) 및 경상용차(LCV)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아 PV5 패신저 모델 주행모습. /기아

마크 티쇼 오토카 편집장은 "기아 PV5는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공간 구성으로 뛰어난 이동 경험을 제공하며 주행감도 매우 세련됐다"며 "특히 뛰어난 가성비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기아 PV5 실내 모습.기아는 PV5에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 AAOS 기반 PBV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1000여 개의 고객 시나리오 검증을 통해 개발한 차별화된 기술과 실제 업무 환경에서 위험을 줄이는 주행 보조 및 안전

시장을 폭넓게 적용했다.

한편 기아가 지난해 6월 국내 출시한 첫 PBV 모델 PV5는 연간 8500대가 판매됐다. 올해는 글로벌 본격 출시를 통해 연간 5만 40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PV5에 이어 2027년 준대형 전기 PBV 'PV7', 2029년 대형 전기 PBV 'PV9'을 순차 출시해 PBV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40가지 이상의 바디타입을 통해 고객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PV5는 유럽 시장에서도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럽 판매를 시작한 후 누적 판매량은 1만 429대를 기록했으며 지난 4월에는 3086대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KT그룹, 'K-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내달 1일부터 접수... 총상금 5400만원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2026 K-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을'로, 올바른 AI 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전국민 인공지능(AI) 경진대회와 연계한 행사다.

공모 분야는 콘텐츠 부문과 솔루션 부문으로 나뉜다. 콘텐츠 부문은 안전하고 올바른 AI 사용과, AI와 공존하는 미래 사회 모습을 주제로 진행된다. 초등부는 직접 그린 포스터, 중·고등부는 생성형 AI 이미지, 대학·일반부는 생성형 AI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솔루션 부문 주제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 위한 AI 솔루션이다. 자연어 기반 AI 개발도구를 활용해 사회·환경·복지 등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는 웹 또는 앱 서비스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중·고등부 및 대학·일반부다.

올해 공모전은 AI 활용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AI 윤리 실천 서약을 도입했다. 참가자들은 접수 시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존중 등의 윤리 서약에 서명해야 한다.

수상 결과는 8월 초 발표 예정이다. 총 44개 작품을 선정작에 대한 상금 총 규모는 5400만원이다. 특히 전 부문 통합 수상자는 상금 1000만원과 함께 'K-AI 그랜드 마스터'에 선정된다. 접수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연령 제한은 없다.

/조민선 기자 msjo@



카카오는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상생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6 카카오 MVP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 /카카오

카카오, 66개 협력사 파트너십 강화

'2026 MVP 파트너스데이' 개최

카카오는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상생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6카카오MVP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파트너스데이는 카카오가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행사다.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행사는 지난 11~12일과 15~1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 호텔 난타에서 진행됐다. 네트워크와 보안, 소프트웨어, 고객센터,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의 66개 파트너사 임직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동반성장 교육과 ESG

경영 컨설팅 지원, 구매 정책 교육, 카카오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세션에 참여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는 장기간 협력 관계를 이어온 파트너사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백지디자인 임우진 이사는 "동반성장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며 "카카오와 파트너사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포빅 성경식 지사장은 "여러 파트너사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CGV 하계 계절학기 이벤트

주요 개봉작, 대학 강의 재해석

CGV가 대학생들의 기말고사와 종강 시즌을 겨냥해 영화 관람을 대학 계절학기에 빚낸 이색 마케팅에 나선다.

CGV는 오는 30일까지 '2026 CGV 하계 계절학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요 개봉작을 대학 강의로 재해석한 콘텐츠와 장학금 콘서트 경품 이벤트, 영화 관람 이력을 성적표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신원선 기자

인사 ◆한국에너지공단 ◇임원인사 △이기범 기후행동본부 이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방영식 △약무정책과장 양명철

◆한미전략투자공사 ◇정부인사발령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박종원

◆전력거래소 ◇1직급(을) 승격 △박재수 전략기획팀장 △조성빈 에너지계획팀장 △최영민 차기IT추진실장

◆삼정KPMG ◇신임 파트너 승진(감사 부문) △남서영 △노영일 △박수진 △안

재영 △이상민 △이종록 △정준영 △주예솔 △진성용(세무자문부문) △공현석 △김낙현 △정혜원 △조영서 △최한솔(재무자문부문) △김형주 △심준보(컨설팅부문) △이창민 △함영은

부음 ▲황진영씨 별세, 활지희·지원씨 부친상, 김정환·신동범(하나증권 금융상품운용실장)씨 부방상 = 14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2호, 발인 19일. 02-2019-4000

파리크라상, 파리영 캠프 6기 신입생 모집

식음료 분야 전문기술 교육 제공

파리크라상이 '파리영(Young)캠프' 6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채용연계 프로그램이다.

제과제빵·샌드위치·조리·커피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식음료 분야 전문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후 희망자 전원을 파리크라상 정직원으로 채용한다.

파리영캠프는 ▲브레드샌드(제빵·샌드위치) ▲푸드(외식 브랜드 조리) ▲비리스타(음료 제조 및 판매) 등 총 3개 클래스로 운영된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10주간 직장생활 기본 교육과 전문

기술 교육, 현장 실습 및 견학 등을 거치게 되며 수료 후에는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커피앳웍스, 라그릴리아 등 파리크라상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올 상반기에도 15명의 교육생이 수료했으며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등에 입사할 예정이다.

하반기 진행되는 파리영캠프 6기의 모집 인원은 총 30명이다. 지원서는 6월 21일까지 접수하며, 서류 심사와 면접, 실기전형을 거쳐 7월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8월 26일부터 교육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리영캠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2028 대입성공 정복하는 일반고 필승전략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등장은 고교 교육과 대입 지형을 흔들고 있다. 내신 5등급제 전환,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수능 국수탐 영역의 완전 통합은 기존 입시 공식을 무력화했다. 인프라가 자사고나 특목고에 비해 불리할 것이라 겁먹는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많다. 그러나 대입 제도의 본질을 꿰뚫고 치밀하게 움직인다면 전례 없는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 일반고 학생이 대입 승리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4대 핵심 행동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100% 학기제로 전환되는 고교학점제 환경에서는 매 학기 단절 없이 이어지는 누적식 선택 설계에 시달릴 것이라 학업 역량을 증명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교과목이 1학기 이내에 종결되는 구조다. 개편안에 따라 학생부의 수행평가 영역명과 반영 비중이 대학에 투명하게 제공되고, 과제가 학술적인 심층 탐구인지, 단순 복사·붙여넣기인지 단번에 탄로 난다.

따라서 시험 직후 주어지는 수행평가와 탐구 보고서 제출 일정은 선택의 성패를 가

른다. 이때를 학업 역량 표출 기간으로 정의해야 한다. 1학기 과목의 지적 호기심이 2학기 심화 과목의 수행평가로 이어지는 연계식 선택을 기획해야 한다. 가벼운 시사 상식 나열은 금물이다. 교과와 본질적 개념을 바탕으로, 전공 맥락과 연결된 심화 원서를 탐독하거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고교생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학술적 수준을 500자 안에 명확히 녹여내도록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둘째, 내신 변별력이 약화된 5등급제 체제 일수록 인원수가 적고 까다로운 심화 선택 과목을 기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수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2028 대입의 큰 변화는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의 전환이다. 결국 변별력은 숫자가 아닌, 정성평가인 교과이수 충실도에서 발생한다.

평균이 50점대인 어려운 심화 과목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평균 80점인 평이한 과목에서 100점을 맞은 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수강 인원이 적거나 어려워서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화 과목을 기피하는 것은 대입 포기다. 치열하게 노력한 흔적을 증명하는 정면 승부만이 공식이다.

셋째, 수시 학교장 추천전형처럼 졸업생의 진입 장벽이 높고 재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고3독점 전형을 선점해야 N수생과의 소모전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대입의 정서는 N수생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학교장 추천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고3 재학생으로 제한하거나, 졸업생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고3 때 갑자기 추천 카드를 딸 수는 없으므로, 1학년 입학 순간부터 내신 관리와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치밀하게 정돈해야 한다.

넷째, 전 영역의 균형이 중요한 통합형 수능에서는 고1시기부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무조건 충족해야 한다. 일반고에서 반복되는 안타까운 비극은 학생부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케이스다.

2028 대입부터 수능은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된다.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탐구 또한 모두가 동일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른다. 유불리가 사라진 셈이다. 특히 고1 때 배우는 통합 탐구 개념이 수능 당일까지 직결되므로 초반부터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

제도 탓을 멈추고 전략으로 압도해야 대입에 성공할 수 있다.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대학이 뽑고 싶어 하는 인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혁신의 기회, 경쟁의 과제



기지 수집
신 하 은
(자본시장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화에 나섰고, 업계에서는 시장 집중도와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간편결제 시장의 강자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가 결합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이번 과정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도 있다.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국내 디지털 금융산업의 성장 측면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거론되는 쟁점은 익숙하다. 데이터 결합에 따른 경쟁 우위, 고객 잠

금효과, 시장 집중도 상승, 후발 사업자의 진입장벽 확대 등이다. 실제로 네이버와 두나무가 결합할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느끼는 위협은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성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다는 점이다.

국내 디지털 금융산업은 이제 막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결제, 투자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연결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플랫폼과 금융의 결합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산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규제와 우려가 먼저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라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외면하지는 하는 이야기다. 특정 기업이 플랫폼 영향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다만 디지털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경쟁 촉진과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산업에 대해 국내 시장만을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과적으로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은 국경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분야다.

시장 경쟁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는 일 역시 중요하다. 이제는 두 지점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godh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8일 (음 5월 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모든 문제는 순리대로 해결됩니다. **60년생** 생각이 못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72년생** 과도한 욕심은 금물. **84년생** 친절한 전화 한 통화가 당신과 애인 사이를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 49년생** 주위를 잘 살피야 합니다. **61년생** 사회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73년생** 밖에 일보다 집안에 무수일이 있나 살펴보세요. **85년생**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 50년생**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62년생** 모든 모임에는 꼭 참석하세요. **74년생** 어려울수록 진실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86년생** 귀인을 만나며,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51년생** 주위에 사람들과 재물들이 모여 행복합니다. **63년생** 바른 마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입니다. **75년생** 이성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87년생** 재물이 모인다고 독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52년생**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64년생** 남 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6년생** 조만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88년생**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것입니다.
- 53년생** 가족에게서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65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후회가 따릅니다. **77년생** 항상 말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89년생** 식복이 있으니 대접을 받습니다.
- 54년생** 감기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66년생** 주변을 항상 주의하도록 하세요. **78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세요. **90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 55년생** 일운이 막히니 건강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67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세요. **79년생** 베풀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91년생** 꽃이 정원에서 웃으니 벌, 나비가 기뻐합니다.
- 56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홍반갈입니다. **68년생** 부적절한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됩니다. **80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92년생** 남녀간의 문제를 조심하세요.
- 57년생** 중도를 염두 해 두고 행동하세요. **69년생** 타인의 잘못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81년생** 성의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93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58년생**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70년생**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82년생** 모든 것이 길합니다. **94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 59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힘을 내세요. **71년생** 옛 친구나 동료에게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83년생** 직장에서 인정 받으니 승진수가 엿보입니다. **95년생**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상회의四季 사찰 풍수

산속에 자리 잡은 절을 찾아가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절마다 모습은 서로 다른데 어디를 가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그 이유는 산속이어서 또는 종교 공간이어서만은 아니다. 한국의 절들은 대부분 산세가 깊고 웅장하거나, 물이 감싸듯 흐르거나, 햇볕이 잘 모이거나 하는 풍수지리에 따라 자리하고 있다. 풍수지리는 땅의 형세와 물길, 산맥의 흐름, 바람의 방향 등을 살펴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터를 찾는다. 풍수에서는 산과 물의 흐름이 조화를 이룬 터에 기운이 모인다고 본다. 좋은 터에는 생기가 모이고, 그 기운이 사람과 건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불교에서도 이 사상은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다. 맑고 좋은 기운이 충만한 곳에 수행 정진하는 도량을 지었고, 그런 까닭에 절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요즘은 도심 곳곳에서도 절을 만날 수 있다. 수행과 기도의 공간이 필요한 대중들에게 도심 속의 절은 찾아가기 쉽고 반가운 곳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도 지하철만 타면 언제든 쉽게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인지 주기적으로 기도를 올리고 마음 수행을 위해 찾아온다. 월광사는 도심에 있지만, 풍수 면에서는 어떤 곳 못지않은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에 있다. 한남동 평창동 같은 곳에는 부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풍수로 길지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재물의 기운이 강하게 모여드는 곳은 좋은 터였다. 월광사 주변에는 은행 본점과 주요 기업 사옥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풍수 좋은 곳에 저절로 재물이 모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월광사에서 기도를 올린 뒤 재물 문제가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생기 넘치는 기운으로 수행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형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1			9	5			
	3			8	2			1
8		1		6		9		2
								7
		2	7		8	4		
7		6		3		8		5
4			5	7			9	
		5	8				4	7

4	2							9
	9	1		8	5			4
			1	9				3
	5					1		
	2	4				7	9	
		3					8	
9	7			3	2			
1	4		9	1		8	2	
						9		5

2	8	9	6	1	7	5	4	3
8	6	2	1	2	9	6	9	7
9	1	8	7	6	9	2	1	3
7	2	6	9	9	1	8	2	6
6	9	7	8	1	2	2	9	9
9	2	1	9	6	2	7	8	9
2	9	6	2	9	1	1	7	8
1	9	2	8	7	6	9	9	1
6	8	9	6	7	9	2	1	2

9	2	6	8	2	7	9	1	1
6	2	8	2	1	6	9	7	9
9	1	7	2	9	9	8	2	6
7	8	9	6	2	9	8	1	2
1	6	2	9	9	9	1	2	8
2	9	1	1	7	8	6	9	2
8	9	2	7	6	1	2	9	9
2	7	9	9	8	2	1	6	8
6	9	6	1	9	2	8	7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3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3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대중교통 최대 53% 환급... 월 10만원으로 광역교통 무제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월 이용금액 6.2만원 미만일 땐 최소 20%부터 53.3%까지 환급 6.2만원 이상 땐 정액형 혜택 적용 광역교통수단엔 '플러스 정액권'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합한 교통카드 서비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도입된다.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가운데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되고, 광역버스·광역철도 이용자를 위한 별도 정액권도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대중교통 이용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정부의 '모두의 카드(K-패스)'에 서울시의 무제한 정기권 혜택을 더한 서비스다. 부가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의와 관련 시스템 개선이 끝난 뒤 시행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후동행카드-K패스 통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2000원 미만이면 모두의 카드 방식이 적용된다. 일반 이용자는 이용금액의 20%를 환급받고, 청년·청소년·다자녀 가구·저소득층 등은 최대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월 이용금액이 6만2000원 이상이면 기

존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정액형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은 월 6만2000원, 청년·어르신·두 자녀 가구는 5만5000원, 세 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5000원이다.

광역버스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플러스 정

액권'도 운영된다. 일반은 월 10만원, 청년·어르신·두 자녀 가구는 9만원, 세 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8만원이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모두의 카드와 같이 대중교통비를 먼저 전액 납부한 뒤 다음 달 산정된 환급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름이 할인과 서울달,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문화·여가시설 할인 혜택은 유지될 예정이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선불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는 7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고, 충전 금액은 8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8월 말까지 이용 가능하며 9월 1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모두의 카드나 K-패스를 이용 중인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고유가 대응 정책인 '3만원 페이백'은 6월 충전분까지만 적용

된다. 6월 이용분에 대해 8월 환급하는 것을 끝으로 종료된다. 모두의 카드의 고유가 대응 정책인 시차출퇴근 이용자 환급 확대와 정액형 요금 50% 할인은 9월까지 운영된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21개 카드사 신청·체크카드 신청, 6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편의점 선불카드 구매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뒤 카드사 누리집과 K-패스 누리집에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카드는 7월 1일부터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발급·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기존 정액형 무제한 혜택을 유지하면서 이용금액이 적은 시민에게는 K패스 기반 환급 혜택까지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김포·고양·과천·성남·하남·남양주·구리 등 7개 시군 이용자도 모두의카드(K패스) 등록이 필요한 만큼, 카드 구매 후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9월 모의평가, EBS 연계율 50% 유지

오는 9월 2일 실시... 한국사 응시 필수 전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근거 출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오는 9월 2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학업 능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문제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2027학년도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분수능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에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안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방침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된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전년도와 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된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국어 영역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이며, 수학 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

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응시해야 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이뤄지며,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수험생의 체감 연계도를 높일 예정이다.

응시 대상은 202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다. 2026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는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거북섬에 국내 최대규모 '아쿠아리움' 조성

시흥시, 인원그룹과 건립 협약 수조규모 1.1만톤... 2029년 개관 목표

시흥시가 거북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인원그룹과 '시흥아쿠아리움(가칭)' 건립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원그룹과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개 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인원그룹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을 건립·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시흥시는 이번 사업을 거북섬 관광 활성화와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충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흥아쿠아리움은 시화MTV 50호 근린공원 내 약 7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수조 규모는 1만1000톤급으로 계획돼 국내 최대 규모



시흥시가 16일 시청 다수방에서 인원그룹과 시흥아쿠아리움 건립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임병택 시흥시장, 김승민 인원그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흥시

의 아쿠아리움이 될 전망이며,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 부지에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1000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조성 중이며, 상부 근린공원과 아쿠아리움이 결합된 복합 관광공간으로 개발된다. 시는 관련 사업에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대관람차와 해양레저시설 등과 연계해 거북섬을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흥(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지방사립대, '특성화 선도대학'으로 만든다

교육부, 지속가능 특성화모델 지원 내년 850억 투입, 15곳 안팎 육성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 3% ↓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커져자 교육부가 내년 850억원을 투입해 지방 사립대 15곳 안팎을 '특성화 선도대학'으로 키운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강점 분야 중심으로 학과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교육부는 17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대학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특성화 지원 특성화 지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별

도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방 사립대학이며, 글로벌대학은 제외된다. 선정 대학은 5년간 지원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 이상을 줄여야 한다. 또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학부·단과대학 등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상당수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이른바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지속해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특성화방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 간 비교우위 분

야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대학과 B대학이 유사한 분야를 함께 운영하는 대신, A대학은 특정 강점 분야에, B대학은 다른 강점 분야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 대학 간 역할 조정 땐 인센티브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원 감축 기준을 3%에서 2%로 완화하고, 사업비 배분 때 20~50%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원 이동 활성화를 위한 공개채용 예외 적용, 특성화 분야 교원 이동 시 정년 기준 완화, 학교 간 기자재 교환 허용, 협동수업 학점 인정 범위 확대 등 규제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0 | 해질 / 19:56

6월 18일 (목) 음력: 5월 4일

수도권 날씨 21~31°C

운중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인천 19/30, 동두천 19/30, 가평 18/30, 파주 19/30, 서울 21/31, 양평 20/31, 수원 21/30, 용인 21/30, 평택 20/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中, 공급망 '급소' 장악하고 수출통제 확대...머스크도 협상 교착
▲트럼프·다카기치, G7서 5분 회동...“자위대 파견 논의 없어” /사진 뉴시스

▲작년 아시아 폭염·홍수로 수백만명 피해...전세계보다 온난화 빨라
▲파리 백화점, 쉬인과 결별...첫 오프라인 매장 연내 폐점 가능성

▲美 봉쇄에도 돈 벌었다...이란 원유 수익, 전쟁 중 오히려 증가
▲통상본부장, 몽골과 CEPA 진전 논의...핵심광물 협력강화



새단장 통했다 백화점 3사 실적 반등
니



Life

동물 없는 신약개발 시대 AI·장기집 부상 L2



당 걱정 없이 새콤달콤하게 라이프스타일 바꾼 '발효의 화학'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대상 청정원 '홍초'

대상 청정원의 '홍초'는 국내 음용 식초 시장을 개척하고 이끌어온 독보적인 메가히트 상품이다. 지난 2005년 첫 출시 이후 '식초 건강학' 열풍을 일으키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 홍초는 올해로 출시 21주년을 맞이했다. 물에 희석해 마시는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우유, 주류, 요리 드레싱 등 다양한 먹거리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해 온 홍초는 당 함유량을 낮추며 발효 기반 건강음료 시장의 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홍초가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통탄하며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 가지 전략으로 요약된다. 첫째 효능보다 마시는 상황을 먼저 설계했고, 둘째 식초 하나에 브랜드 역량을 집중했으며, 셋째 시대 변화에 맞춰 음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국내 음용식초 개척한 독보적 히트작 물·주류·요리 넘나드는 음용방식 진화 소주 믹스 확산... 혼합주 문화 만들어

◆조미료에서 건강 소재로

2000년대 중반 국내 식품 시장은 식재료의 효능을 일상 속에서 소비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조미료의 경계에 갇혀 있던 식초가 건강 소재로 재 조명받기 시작했다.

사회적 관심을 배경으로 대상 청정원은 과일 맛을 전면에 내세운 음용 식초 브랜드 '홍초'를 선보이며 식초를 물에 희석해 마시는 새로운 소비 방식을 제안했다. 식초 특유의 자극을 낮추고 일상적으로 마실 수 있는 음료라는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당시 시장에는 설탕이 흑초 중심으로 발효와 숙성, 기능성을 강조하며 음용 식초를 건강

식 영역으로 이끌었고, 웅진식품 역시 웰빙 음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시장에 참여하며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식초라는 단일 카테고리 브랜드 역량을 집중한 대상 청정원만이 생존했고, 이를 통해 음용 식초는 하나의 독립된 시장 카테고리로 재편됐다.

◆소주 믹스에서 RTD·하이볼로

홍초가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것은 주류 시장과의 결합, 즉 '소주에 타서 마시는 음용 제안'이었다.

물과 탄산수 희석에 더해 소주 믹스 문화가 확산되면서 홍초는 주스 시장과 주류 시장을 동시에 넘나들었다. 과일 식초의 산미와 단맛은 소주의 알코올 향을 완화해 주었고 별도의 조향 과정 없이도 집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혼합주 문화를 가능하게 했다.

최근 주류 시장에서는 RTD(Ready-to-Drink)와 저주, 하이볼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며 소비 방식이 완제품 형태로 경량화되는 추세다. 이미 2000년대 중반에 홍초가 제안했던 DIY 소주 믹스 등의 음용 방식은 시대를 앞선 혁신적인 소비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당 포트폴리오의 성장

시대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를 갱신해 온 홍초의 기획력은 최근의 '저당·저칼로리' 트렌드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다.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극대화됨에 따라 대상 청정원은 당 함량과 칼로리를 획기적으로 낮춘 '저당 홍초' 라인업을 강화하며 발효 기반 건강음료 시장 선도에 나섰다.

대상 청정원은 지난해 5월 당 함량과 칼로리를 낮춘 '저당 홍초' 2종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선보인 데 이어 당해 12월에는 겨울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온음료 겸용 제품까지 출시하며 음용 경험을 확장했다. 성과는 눈부셨다. '저당 홍초'는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매출액 약 200억 원을 기록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대상 청정원은 브랜드 대표 인기 플레이어인 '석류'를 저당 제품으로 선보이는 동시에 음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스틱형 신제품까지 대거 확장했다.

이번 신제품은 홍초 '저당 석류', 스틱형 '저당 스틱 석류', '저당 스틱 레드애플' 등 총 3종이다. 대상이 자체 생산한 고품질 알룰로스 활용에 일반 음용 식초 대비 당류와 칼로리를 대폭 낮췄으며, 자체 저당·저칼로리 엠블럼인 'LOWTAG(로우태그)'를 부착했



로우태그가 부착된 저당 홍초 석류, 레드애플, 레몬&라임. /청정원

다. 또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해 기능성을 더했다.

대표 제품인 홍초 '저당 석류'는 스페인산 석류 농축액으로 만든 100% 과일숙성발효초를 사용해 새콤달콤한 풍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100g당 당류 3g, 칼로리 37kcal 수준으로 일반 음용 식초 대비 당류는 74%, 칼로리는 56%나 낮췄다.

제로 열풍 속 저당·저칼로리 출시 음용 편의성 극대화 스틱형 신제품 혈당상승 억제 돕는 기능까지 더해 겨울철 온음료 설계... 사계절 공략

◆계절의 한계를 깨다

음용 식초는 여름철에만 시원하게 마시는 음료라는 고정관념 역시 청정원 홍초 앞에서는 여지없이 깨졌다. 지난해 겨울 한정판으로 선보였던 온음료용 홍초 '저당 석류&히비스커스'와 '저당 유자&캐모마일' 2종은 음용 식초를 계절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라이프스타일 음료로 재정의한 대표적 사례다.

이 제품들은 겨울철 대표 허브티 원료인 히비스커스와 캐모마일을 활용해 뜨거운 물에 타서 따뜻한 차처럼 마셔도 식초 특유의 찌르는 듯한 새콤한 향이 도드라지지 않고 부드럽고 향긋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뜨거운 물과 홍초 원액을 2:1 비율로 희석하기만 하면 티백을 우리거나 가루를 녹일 필요 없이 바로 완성된다. 두 제품 역시 100g당 당류 4g, 칼로리 35kcal 이하로 당과 칼로리를 대폭 낮췄으며,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알로에 겔을 함유한 기능성표시식품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청정원 저당 홍초 스틱 석류, 레드애플.



▲ '축구대표팀 에이스' 이강인, 패스 등급 전체 1위 등극
▲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달성 /사진 뉴시스

▲ '종아리 부상' 네이마르, 러닝으로 첫 훈련... "회복 과정 한 걸음 진전"
▲ '고교 유망주' 엄준상, MLB 애리조나행 확정... 계약금 23억원

▲ 이정후 vs 김하성 '방망이 대결' 비로 스스펜디드...18일 재개
▲ '우승 후보' 프랑스, 세네갈 3-1 격파...음바페, 최다골까지 2골차 추격

SAMSUNG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2026. 06. 08 ~ 07. 05



구매금액
20%

제품 구매 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증정

소상공인과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동일 품목당 2대까지 신청 가능, 데이코, 허만, 소모품, 액세서리 등 일부 제품 제외
*이동통신사 구매 제품은 모델별 정액으로 지급 (모델별 지급금액은 삼성닷컴에서 확인)

K-Hero 혜택

30%

국민께 봉사하는 K-Hero 분들께 (군인 및 경찰·소방·교정공무원)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10% 추가 혜택

*삼성전자 패밀리룸에서 대상 모델 구매금액의 10% 추가 혜택 (구독 제외)

구독료 지원 **6개월**

AI 구독클럽 6개월 구독료를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로 지원

*PC/Tab/모니터 4년, 로봇청소기 5년, 그 외 TV 및 가전품목 6년 가입 한정 (스마트폰 제외)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을 참조해주세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